

정책연구 2008-2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6.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5
II. 농촌어메니티의 개념과 의의	6
1.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6
2. 농촌어메니티의 의의	20
3. 농촌어메니티 형성전략	32
4.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프로세스	39
III. 농촌어메니티의 국내·외 활용사례	42
1. 해외사례	42
2. 국내사례	54
3. 시 사 점	74
IV.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실태분석	77
1.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실태분석	77
2.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91

V.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94
1.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 활용방향	94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활용방안	110
VI. 결론 및 제언	125
참고문헌	128
부 록	129

< 표 목 차 >

<표 II-1> 어메니티 개념의 정의	8
<표 II-2> 어메니티의 유형 구분	11
<표 II-3> 도시어메니티와 농촌어메니티의 차이점	14
<표 II-4> 농촌어메니티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영역	15
<표 II-5> 농촌어메니티의 분류	18
<표 II-6>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종류	20
<표 II-7> 농촌어메니티의 특성	23
<표 II-8> 지향 가치에 따른 어메니티 활용유형	31
<표 II-9> 농촌어메니티 정책수단의 유형	38
<표 III-1> 서천군의 어메니티 활용전략 개요	63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8
<표 IV-2>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복수응답)	78
<표 IV-3>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시기	79
<표 IV-4> 현재 마을가꾸기 사업에 어메니티 개념(전략)을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 ...	79
<표 IV-5> 마을의 어메니티 개념 도입 및 활용수준	80
<표 IV-6> 어메니티 개념을 처음 추진하게 된 계기	80
<표 IV-7>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는 목적	81
<표 IV-8> 지역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한 활동	81
<표 IV-9> 어메니티를 도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이유	82
<표 IV-10> 어메니티를 도입할 계획 여부	82
<표 IV-11> 어메니티를 도입할 시기	82
<표 IV-12> 어메니티 도입 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83
<표 IV-13> 선생님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의 존재 정도	83

<표 IV-14>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 분야(1, 2순위)	84
<표 IV-15>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단계	85
<표 IV-16>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 중점사항(1, 2, 3순위)	85
<표 IV-17> 현재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86
<표 IV-18> 어메니티 도입 및 적용에 대한 항목별 기대효과	86
<표 IV-19> 어메니티 사업수행 여부	87
<표 IV-20> 어메니티 사업의 중요도	88
<표 IV-21>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1, 2순위)	89
<표 IV-22> 마을내 자원의 어메니티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생각	90
<표 IV-23>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시 가장 필요한 유형	90
<표 V- 1> 어메니티 활용 상품개발의 다양화 방안	111

<그림 목 차>

[그림 II-1] 농촌어메니티 개념의 구성요소	16
[그림 II-2]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호 연계성	17
[그림 II-3] 어메니티 활용의 프로세스	40
[그림 III-1] 유후인 농촌경관 어메니티의 활용 개념도	47
[그림 V-1] 어메니티를 활용한 제주지역 농촌 활성화의 개념	95
[그림 V-2]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이념	96
[그림 V-3] 농촌어메니티 활용 종합계획의 구성	103
[그림 V-4] 농촌어메니티 전략 추진주체 형성	106
[그림 V-5]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절차	116
[그림 V-6] 농촌관광 유형에 따른 관광상품 구성요소	118
[그림 V-7]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전략의 개념	119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전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촌지역은 숭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농업인력의 감소, 농업인구의 고령화, 도·농간의 상대적인 격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낙후 및 열악한 복지기반 등으로 농촌 정주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등 농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채부담의 가중,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제주지역의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육지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안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광 중심의 산업전략과 감귤 등 일부 작목에 치우친 농업정책으로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온 데다 FTA 등 국가간 협약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 등으로 제주농업과 농촌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처럼 정책 차원의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처할 실질적인 농촌지역의 역량 제고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즉, 정책대상 및 범위가 지나치게 농업생산과 농민에 치중되어 농촌지역 개발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농산물 수요자 영역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정책이나 생산·유통기반 확충 등 하드웨어적 사업에 치중하여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적 개발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는 작금의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은 농촌지역의 장기적 발전구상을 바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관련 부처의 개별법이나 지침상의 목표 및 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발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역개발사업들이 경관

형성, 전통·문화의 보전, 도농교류,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농촌공간의 다원적 기능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데 이르지 못해왔다.

이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사업들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농촌공간을 단순한 생산공간으로 인식해왔다는 데 있다. 즉, 개별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외면한 채 일률적인 하향식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획일화를 가져왔으며, 전통문화유산의 파괴를 초래하고 농촌이 지닌 발전적 가치를 사장시켜 왔다.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 따른 대안으로서 '어메니티(amenity)'라는 말이 주목받고 있다. 종래의 농업생산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농촌개발정책을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복원, 그린투어리즘, 친환경, 환경보전 등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함께 농촌에 내재되어 있는 어메니티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 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OECD에서 농촌에 산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공간 개발전략이다. 특히, WTO 농업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업질서의 재편은 집약적 농업을 장려하는 농업생산정책에서 선회하여 농촌공간개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내생적 농촌공간개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들을 농촌어메니티 측면에서 분류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내생적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정비 및 개발정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개발전략이라 할 수 있다.¹⁾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는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과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농촌은 생산기반인 동시에 문화적, 공간적,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그 개발을 통해 경제가치를 창출하며, 농촌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여 활력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전략이라 하겠다.

한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활성화

1) 조상필,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p.2.

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관광 등 근자에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 대다수는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비록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제주지역에서도 몇몇 농어촌마을별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마을별 소규모 축제들이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 연원이 짧지만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농촌어메니티 전략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요구한다. 어메니티 자원의 창출과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 자원의 탐색 및 창출, 활용을 위한 프로세서의 개발, 실행에 따른 평가 등 어메니티 전략이 농촌마을의 삶의 질과 경제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목적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동안 농촌정책의 기초가 되었던 '농업=농촌' 또는 '농업생산성 향상=농어발전=농촌발전'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농촌의 지역적 특성이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개발 정책 또는 전략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농촌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내지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국토 공간상에서 농촌 지역의 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도 대두되어 왔다.

이는 도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농촌을 인식하려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탈피하고 도시와의 기능적 연관성과 결합성의 맥락에서 농촌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급속한 여건변화 속에서 농촌지역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촌 지역이 지닌 다양한 자원과 잠재력을 수용하는 농촌 활성화와 농촌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²⁾

이에 대한 총합적 대안의 하나로서 우리는 농촌 어메니티 전략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농촌개발, 문화와 환경과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주민주체 개발, 농촌 지역별 어메니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대안으로서 어메니티 전략에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어메니티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농촌어메니티의 개념과 의의 및 특성 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 선

2) 유상건, "한국 농촌 개발의 성과와 과제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어촌과 환경', No.98, 한국 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2008. 3. p.38.

진사례를 검토하여 주요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제주지역 농촌의 어메니티 전략 도입의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다.

또한, 현재 다양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어촌마을의 추진현황을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제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메니티 전략 추진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에도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메니티의 개념 정립과 그 의의 및 특성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 전략이 실제 어떻게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대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사례 지역으로는 이탈리아 투스카니와 일본의 유후인, 이야정, 가고시마를, 국내사례 지역으로는 왕피천 유기농생태공동체, 서천군, 문당리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주지역 농어촌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토대로 제주지역 농어촌마을에 도입 가능한 어메니티 전략의 개요를 주요 부문별로 검토하여 농어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농촌어메니티의 개념과 의의

1. 농촌어메니티의 개념

가. 어메니티의 개념

1) 어메니티의 기원과 논의배경

‘어메니티’는 라틴어 ‘아마레(amare : 사랑하다)’ → ‘마모에티타스(amoenitas : 쾌적함, 기쁨)’에서 유래한 영어 ‘amenity’로 ‘쾌적함’과 ‘사랑’이라는 두 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어메니티를 굳이 한국어로 옮기려면 그 다의성이 상실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메니티’라는 용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어메니티의 다의성은 어메니티가 태동하고 도입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면서 그 개념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어메니티는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도시환경의 질, 특히 산업도시의 공중위생 및 보건,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매연에 찌들린 공업도시에 반해 주로 중산층이 이상향적인 도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이 강하다³⁾.

어메니티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영국의 ‘도시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부터이다. 이후 1967년 ‘공중 어메니티법(Civic Amenities Act)’과 1974년 ‘도시·농촌 어메니티법(Town and Country Amenities Act)’이 제정됨으로써 어메니티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의 도시계획 학자 Smith는 어메니티가 공중위생(공해방지), 쾌적함, 보존의 세 가지 모습을 지닌 복합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를 쾌적함만으로 번역해서는 이외의 두 가지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였다.

어쨌든 초창기에는 어메니티가 산업혁명 후의 도시문제의 출현에 대한 안티체제(反定立)로서 발생한 ‘중산계급의 미학’으로서 도시의 하층에서부터 실천된 것이다. 이는 어메니티라는 사상이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임을 나타내고 있

3) 김현호·오은주,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6.

다. 이때의 어메니티 핵심요소는 생명구제이며, 특히 그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메니티의 ‘생명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메니티는 영국 초기 도시계획의 기치였으며 주민참여를 강조했고, 영국에서는 도시계획과 지방계획의 핵심개념으로 일컬어져왔지만 인류 역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이어서 환경혁명기를 의식하게 됨에 따라 한결같이 환경의 사상으로 불리게 되었다4).

2) 어메니티의 정의

어메니티는 ‘정의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할 만큼 정의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이처럼 합치되고 정형화된 개념정의를 존재하지 않지만, 어원적 측면, 사전적 측면, 존재 및 형태적 측면, 경제·행정적 활용 관점 등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5). 즉, 어원적으로 어메니티는 ‘사랑’, ‘쾌적함’, ‘기쁨’, ‘좋아함’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전적 측면에서는 ‘쾌적한 질로서의 장소, 상황, 국면, 기후’나 ‘편리, 즐거움,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어 쾌적성이나 편리, 안전, 즐거움에 보탬이 되는 환경이나 서비스로 이해되고 있다.

존재 및 형태적 관점에서는 ‘긍정적 감흥이나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의 총체’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으로서의 총체적인 환경의 질로 인식하거나, ‘사람이 사물이나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느끼는 쾌적성’, ‘자연경관의 창조와 관련된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의 쾌적함’ 등의 개념정의를 이 부류에 속한다. 이 같은 정의는 어메니티를 긍정적 심미감을 주는 생활환경의 총체라는 종합·환경성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행정적 활용 관점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나 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자원이나 서비스 등을 어메니티로 정의하고 있다. 이 부류에는 어메니티 자원을 농촌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OECD의 관점이나, 어메니티를 기업이나 주거의 입지요소가 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인식하고

4) 조상필, 전계서, pp.22~23.

5) 김현오 외, 전계서, p.8.

있는 경제·행정학적 관점이 해당된다. 이는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 장소 특수적 가치(location-specific good), 장소 특수적 재화나 서비스, 공공 및 행정서비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II-1> 어메니티 개념의 정의

구 분	정 의	주안점
Oxford, Cobuild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질로서 장소, 상황, 국면, 기후 등 • 사람의 편리·즐거움·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것 	여건
OECD(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역사·문화적 요소를 포함해 자연·인위적인 것이든 지역에 존재하는 모습들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효용을 제공하는 것 	자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사회의 발전수준에 따라 달리 정의되는 총체적인 환경 	총체성
삼성경제연구소(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사물,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쾌적성 	환경측면
농촌경제연구원(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소리·향기·촉감·시각 등 오감관련 가치창출 농촌자원 	농촌발전자원
강원발전연구원(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에게 즐거움이나 기쁨을 제공하여 효용을 창출하는 가치자원 	효용창출자원
황기원(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 복지와 유사개념 	욕구충족
일본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의 창조와 관련된 쾌적한 환경 	물리적 환경
Hall Ford(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으로서 총체적 환경의 질 	종합성
Cullingworth(19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쪽이 쉬운 것 	보존·활용
Diamond,Tolley(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특수적 효용, 가치 	공공재·효용
Gottlieb(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특수적 재화나 서비스 	공공재
Boarnet(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지역 간 입지요소 	경제활동 입지요소
酒井憲一(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의 쾌적함 	기분 전체
Clark(2002), 이승중(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재(快適財),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조상필(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환경의 어메니티를 포함한 심리적 매력과 경제적 가치성이 포함된 개념 	총체성

자료: 김현오·오은주,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p.9. 제작성.

이와 같이 어메니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어메니티의 일반적 개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어메니티는 총체적인 환경의 질이다. 즉, 어느 한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상태로서 종합적인 환경의 질을 일컫는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매력적이고, 기분 좋다고 느끼는 다양한 환경의 조건이 충족될 때 증진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총량이다.

둘째, 어메니티는 인간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의 상태이다. 어메니티는 사람들이 바라는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물리적 여러 요소가 포괄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오감의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기분 좋다고 느끼는 물리적 환경의 상태'가 중요하다. 따라서 어메니티는 문화환경의 충족감과 함께 쾌적한 자연의 순수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다.

셋째, 어메니티는 상대적 개념이다. 즉, 어메니티는 나라와 개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고 이용됨으로써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의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습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넷째, 어메니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개념이다. 어메니티는 이용자들의 소득향상, 문화적 욕구 증대에 따라서 양적·질적으로 증대된다. 그리고 어메니티가 있는 시간과 공간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추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어메니티의 유형

어메니티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양한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즉, 지역, 인위성, 내용, 향유주체 등 접근내용과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측면에서는 도시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 어촌어메니티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인위성 측면에서는 자연 어메니티, 인공 어메니티, 내용에 따라서는 문화어메니티, 자연어메니티, 사회어메니티 등으로, 그리고 향유주체에 따라서는 주

6) 조상필, 전게서, pp.27~28.

거어메니티, 산업어메니티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OECD는 복합적 관점에서 생성기원, 존재형태, 재산권 주체에 따라서 어메니티를 구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존재형태에 따라 자연적 어메니티, 문화적 어메니티, 사회적 어메니티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표 II-2>와 같다.

이 가운데 사카이 겐이치(酒井憲一, 일본 시민환경단체 'Amenity Meeting Room ; AMR' 회장)의 여섯 가지 분류를 살펴본다. 첫째, 생명·안전 어메니티는 안전의 근본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공해방지, 재해예방에서부터 위생, 의료, 간호, 보건, 복지 등의 제도운영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인권의식이나 자연보호, 평화, 공생의 의식과도 연결된다.

둘째, 자연 어메니티는 쾌적함의 근원인 자연 즉, 물과 녹음, 땅과 대기 그리고 생물을 지키는 어메니티이다. 생명 어메니티와 중복되지만 특히 동식물이나 풍토의 자연을 지키는 어메니티를 의미한다.

셋째, 역사·문화어메니티는 전통적 가로·주택 등 역사적 환경이나 문화재의 보존·창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뮤직홀, 컨벤션홀, 문화센터, 정보미디어, 전람회장, 이벤트장, 번화가, 고건축 민가, 학교, 스포츠 등 쾌적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적 분위기에 관한 어메니티이다.

넷째, 미적 어메니티는 도시디자인이나 패션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물 그리고 손으로 만든 하이터치의 아름다움 등이 해당된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조용함의 아름다움, 프라이버시, 마음씨 고운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편리 어메니티는 개발억제와 기술개발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편리함을 돕는 어메니티이면서 편리 지상주의에 빠져 오히려 인간소외를 낳는 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술의 반(反)어메니티적인 개발을 억제하며, 나아가 반어메니티를 억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강구하는 '테크노 어메니티'의 필요성도 담고 있다.

여섯째, 개성·종합어메니티는 하나의 사물에 어메니티 요소가 있어 어메니티적이라 해도 주위와의 조화나 전체로서의 정합성이 없으면 어메니티라 할 수 없듯이 개성과 종합을 합친 용어이다. 하지만 '개성어메니티'와 '종합어메니티'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 II-2> 어메니티의 유형 구분

구 분	분 류	내 용
OECD (복합적 관점)	생성기원	•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
	존재형태	• 점 어메니티, 비점 어메니티
	재산권 주체	• 사유재 어메니티, 공공재 어메니티
농촌진흥청 (존재형태 기준)	자연적 자원	• 대기질, 수질, 소음 없는 환경, 기후, 수자원, 식생, 토양, 지형, 동물
	문화적 자원	• 전통건축물, 전통주택, 문화시설, 역사, 제반 경관
	사회적 자원	• 놀이,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생활공동체, 특산물 생산 등
사카이 겐이치 (활용형태 기준)	생명·안전어메니티	• 환경오염, 재해예방, 도시기반정비, 도로, 주택
	자연어메니티	• 동식물, 풍토와 자연
	역사·문화어메니티	• 문화재 보전, 미술관, 도서관, 컨벤션홀, 변화가
	미적 어메니티	• 도시설계, 녹음, 물
	편리 어메니티	• 개발억제, 기술개발
	개성·종합어메니티	• 디자인, 복합정비지구, 교육활동
국토연구원 (지역별 존재형태 기준)	자연자원	• 도시 : 기후, 공기, 공원, 하천, 도시경관 등 • 농·산촌 : 논, 밭, 임야, 구릉지, 마을숲, 경관 등 • 어촌 : 바다, 방풍림, 갯벌, 해안 등 • 기타 : 도로경관, 댐경관, 녹지, 수변 등
	문화자원	• 도시 : 축제, 조명, 문화시설, 광장 등 • 농·산촌 : 축제, 전통주택, 역사, 지명, 교류활동 등 • 어촌 : 축제, 명승지, 전통문화, 전설, 지명 등 • 기타 : SOC, 갤러리, 역사문화 전시관 등
	사회자원	• 도시 : 건축물, 가로, 공공서비스, 안전, 정보 등 • 농·산촌 : 특산물, 농업시설, 녹색관광, 정자나무 등 • 어촌 : 항만, 포구, 수산물, 해수욕장 등 • 기타 : 휴게소, 교량 등

하지만 이러한 분류들은 모두가 존재형태적 관점에서 어메니티의 양적 현황을 파악하고, 어메니티를 생성, 창출하기 위한 토대로 어메니티 유형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메니티 분류와 실태파악에 장점을 보이지만, 지역발전에 대한 어메니티의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생성기원 등 너무 포괄적 관점에 의해 어메니티를 분류하여 구분된 어메니티 상호간의 배타성도 부족하다⁷⁾.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3)는 이와 조금 다른 관점 즉, 효용성 추구관점에서 어메니티를 편리성 추구 어메니티, 환경성 추구 어메니티, 심미성 추구 어메니티, 문화성 추구 어메니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농촌어메니티는 여기에 경제성 추구 어메니티를 부가함으로써 어메니티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도시어메니티와 농촌어메니티를 구분한 <표 II-3>에서 잘 나타난다.

나. 농촌어메니티의 개념과 분류

1) 농촌어메니티의 정의

위와 같은 어메니티의 개념을 농촌에 적용한 것을 농촌어메니티라 하겠다. 즉, 농촌어메니티는 인구집중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반(半)자연환경이 지배적인 지역의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것이며, 한번 없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

OECD에서 보듯이, 농촌어메니티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 고건축물, 농촌경관, 농촌공동체의 독특한 문화나 전통 등의 농촌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어메니티를

7) 김현호외, 전계서, p.16.

8) 조상필, 전계서, pp.33~34.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 농촌지역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보고 있다⁹⁾.

일본에서는 농촌어메니티를 농촌지역 특유의 풍부한 자연이나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여유와 윤택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찬 거주 쾌적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메니티 개념은 주로 도시의 주거환경에 적용되어 발전해온 개념이다. 농촌어메니티도 이것과 완전히 다를 수는 없지만 장소적 특수성이 고려되어 그 내용이나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역개발·계획분야에서 농촌어메니티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농촌어메니티를 주거만족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개발 수단 혹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품으로 평가하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즉, 농촌어메니티란 도시민들에게 특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는 일종의 체험상품(experience commodity)과 같은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농촌어메니티가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어메니티에는 도시의 그것과 달리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공된 인공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며, 농촌다운 분위기(rural sentiment)를 느낄 수 있는 자원은 농촌어메니티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는 주거환경 조건으로서 고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농촌어메니티에는 주거 만족도와 밀접한 생활환경 차원을 기본으로 '역사문화성', '자연친화성' 혹은 그것에 의해 표출되는 '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중요한 차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농촌어메니티에는 도시어메니티와 달리 단순한 역사문화성이 아니라, 목가적 이미지, 고향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농촌다운 분위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시어메니티와 대비해서 그 자체가 개성이고 차별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개념으로서 새로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을 의미함으로써 농촌정책이나 개발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으며, 도시에서와 같이

9) 전영옥,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p.6.

공간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재화로서 자원 중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공동자산으로서 이들 양자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들에게는 일상적 생활환경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도시민에게는 관광이나 상품구매와 같은 소비욕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도시어메니티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농촌어메니티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도시어메니티는 도시환경의 악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성립된 개념으로서 생활환경의 종합적인 쾌적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어메니티의 최종 목표는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추구이며, 그 수혜자는 도시민에게 국한된다. 또한, 전략적으로는 편리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실천하여 포괄적인 공간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

<표 II-3> 도시어메니티와 농촌어메니티의 차이점

구 분	도시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
목 표	포괄적인 공간의 질 상승	농촌의 새로운 시장의 창출
정책대상	도시공간	개별자원
수 혜 자	도시민	농촌주민 및 도시민
어메니티정책 추구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리성 개선 • 환경성 회복 • 심미성 추구 • 문화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 추구 • 편리성 개선 • 환경성 회복 • 심미성 추구 • 문화성 확립

자료: 전영옥,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p.8.

따라서 농촌정책의 새로운 목표로서 기존 농촌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농촌어메니티는 도시어메니티와 차이가 있다. 즉, 농촌어메니티는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농촌어메니티는 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

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농촌환경 개선 및 농촌복지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결국, 농촌어메니티와 도시어메니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촌어메니티가 경제성 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 농촌어메니티의 구성요소

농촌어메니티의 개념이 농촌지역 특유의 자연과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한,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쾌적성을 갖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유에 대한 가치기준은 경제성과 문화성이다. 그리고 정감에 대한 가치기준은 환경성과 환경 쾌적성이며, 평온은 거주 쾌적·안전·보건성이 가치기준이 된다.

그리고 정감에 대한 가치내용의 실현수단은 아름다운 모습의 마을 만들기와 자연환경과의 친숙한 접촉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평온에 대한 가치내용은 농촌거주기반의 정비와 안전·보건시설의 확충에 의해 실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는 현재의 효율성 위주의 농촌정비의 영역에서 발전적으로 확대한 마을 또는 지역 가꾸기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EU국가는 물론, 일본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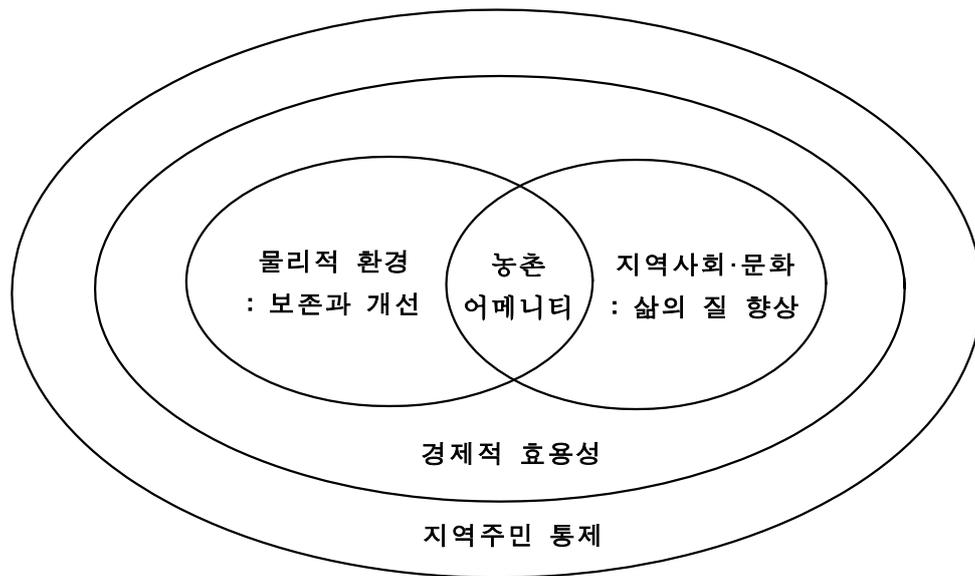
<표 II-4> 농촌어메니티의 핵심적 가치와 목표영역

가치관의 내용	가치기준	목표영역
여유	경제성, 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을 살리는 산업기반 구축 애착이 가는 고향 만들기
정감	환경성, 환경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모습의 마을 만들기 자연환경과의 친숙한 접촉
평온	거주의 쾌적·안전·보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거주기반의 정비 안전·보건시설의 확충

자료: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p.8.

한편, 농촌어메니티 개념을 구성하는 영역들을 보면, 농촌은 자연적 모습을 포함하는 물리적 영역과 고유한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농촌의 물리적 환경이나

산물과 농촌사회가 간직한 인간적 정감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다. 역으로 물리적 영역과 사회문화적 영역을 발전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영역과 농촌지역 내에서 농촌개발을 내생적 사업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지, 즉, 지역주민의 통제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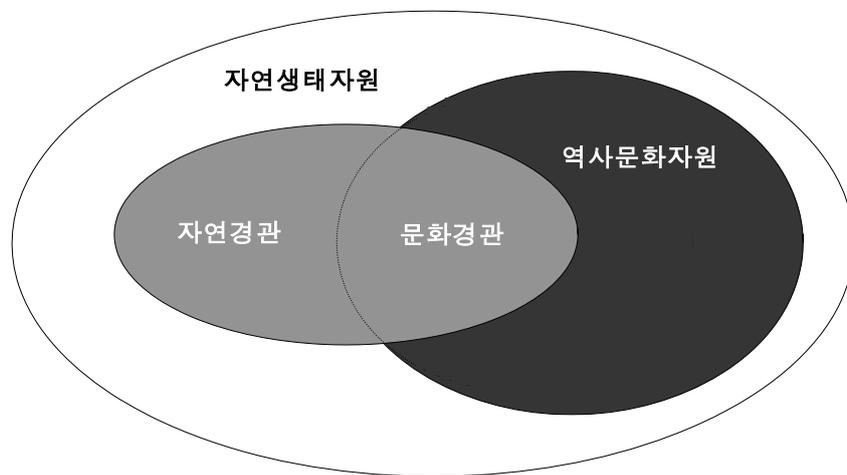
[그림 II-1] 농촌어메니티 개념의 구성요소

3) 농촌어메니티의 분류

농촌어메니티의 유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가능하다. 먼저 OECD에서는 인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어메니티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로 그 가치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원시림, 야생지, 고산지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로,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활동에 의해 변형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이 농촌어메니티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사활동 등에 의해 형성된

농촌경관이나 전통방식의 어로활동, 휴양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로 역사적 기념물, 전통 수공예품, 마을축제 등으로 표현되는 전통이나 문화로부터 가치가 발생한다.

농촌의 인위적 어메니티는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화적 어메니티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체로 자연적 어메니티에 가까울수록 한번 훼손되면 그 고유성을 복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어메니티는 그 보존과 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자료: 전영옥,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4, p.9.

[그림 II-2]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호 연계성

삼성경제연구소(2003)에서는 자연생태자원과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생태자원으로는 대기질, 수질, 소음이 없는 환경, 비오톱, 토양, 동식물 등이 해당되며, 경관자원으로는 산림경관, 하천경관, 농업경관, 주거지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전통건조물, 전통마을구조, 풍수지리나 전설, 생활공동체활동, 농업공동체활동, 마을놀이 등으로 구분하여 OECD와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은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서

로 연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표 II-5> 농촌어메니티의 분류

분류기준	범 주
인적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의 자연 그대로 어메니티 : 가치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태 • 인간과 자연 상호작용 따른 어메니티 : 인간활동에 의해 변형 • 인위적 어메니티 : 인위적으로 가치 부여
가치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가치 : 어메니티가 위치한 장소를 방문 및 거주하여 향유 • 비이용가치 :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효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가치 : 장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인지로 발생 - 존재가치 : 그곳에 존재한다는 사실 인지 자체만으로도 만족 - 유산가치 : 미래세대에 보전하여 줄 필요성에 의해 발생
시장 유통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어메니티 : 소비의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 특징. 한계비용 없음. • 사유재어메니티 : 소비의 경쟁성과 배제성이 특징. 한계비용이 높.
생산과정에서 경제활동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효과로서 창출된 어메니티 :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은 채 생성 • 외부효과가 아닌 어메니티 : 가격기구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됨.
물리적 분포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원 어메니티 : 공간적 경계가 명확 • 비점원 어메니티 : 넓은 지역 내 산재
생성의 역사적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적 어메니티 : 인간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은 원시림, 사막 등 • 반자연적 어메니티 : 인간활동에 의해 변형된 자연 • 인공어메니티 : 문화유물, 전통공예, 마을축제 등 전통과 문화에 기인
이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발굴 어메니티 : 아직 이용 잠재력이 부여되지 않은 것 • 미이용 어메니티 : 이용 잠재력은 확인하였으나 사용되지 않는 것 • 저이용 어메니티 :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어메니티 • 적정이용 어메니티 : 적절하게 이용되는 어메니티 • 과다이용 어메니티 : 적정이용량을 초과한 어메니티

자료: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p.46.

또한, 자원 관리방향에 따라 기초핵심자원, 생활자원형, 관광자원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자연생태자원 중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 없는 환경, 식생 등이 기

초핵심자원이며, 경관자원 중 산림, 하천, 농업경관은 기초핵심자원으로서 농촌이 지닌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자원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문화자원은 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는 가치의 향유정도에 따라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로 구분 가능하다. 비이용가치는 선택적 가치와 존재가치, 유산가치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유통가능성을 기준으로 공공재 어메니티와 사유재 어메니티로 구분 가능하다. 공공재 어메니티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공공부문의 적절한 개입 없이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최적공급을 이루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농촌개발에 있어서는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는 농촌어메니티 공급에 대한 보상이나 상품화 등의 수단을 통한 가치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의 기타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물리적 분포형태, 생성의 역사적 과정, 이용수준 등 여러 기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가 뚜렷한 공간적 경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한 지점에 위치하는 경우를 점원 어메니티(point amenity)로, 그렇지 않고 넓은 지역에 퍼져서 존재하는 경우를 비점원 어메니티(non-point amenity)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어메니티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 점원 어메니티보다는 비점원 어메니티가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다양한 분류체계에 대한 탐색은 다양한 농촌개발 전략, 즉, 개별 어메니티들의 속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환 메커니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농촌어메니티들을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더욱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으며 보존과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적기여 정도 또는 생성의 역사적 과정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분류에 따른 자원 종류를 보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종류

자 원 분 야		종 류
자연자원	환경자원	•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소음이 없는 환경
	생태자원	• 비옥한 토양, 미기후(계절의 변화 등), 특이지형 • 동물(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동물 등) • 수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 식생(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보호수림 등) • 습지 혹은 생물서식지(biotope)
문화자원	역사자원	• 전통건축물(문화재, 정자, 사당, 제각 등) • 전통주택 및 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 신앙공간, 마을상징물, 유명인물 • 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설화 등)
	경관자원	• 농업경관(다락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등) • 하천경관(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수림 등) • 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 주거지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등)
사회자원	시설자원	• 공동생활시설,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 • 농업시설(공동창고, 공동작업장, 집하장, 관정, 농로 등)
	경제활동자원	• 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 등) • 특산물(유기농산물, 특산가공품 등)
	공동체활동자원	• 공동체활동, 씨족행사, 마을 문화활동, 명절놀이 • 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2005, p.5.

2. 농촌어메니티의 의의

가. 농촌어메니티의 특성

다양한 차원의 농촌어메니티는 ‘장소정책(place policy)’의 대상이 되고 정책활용의 토대가 되는 일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에 따른 특성으로는 장소 특수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비가역성 등이 있다.

첫째, 장소 특수성은 특정지역의 어메니티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성을 지닌다는 특성이다. 장소나 지역 간의 대체 불가능성이 높아 동일한 어메니티를 다른 지역에서 생산,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같은 장소 특수성 때문에 어메니티를 소비하거나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입지 또는 방문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메니티가 장소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 특수성을 고유성 또는 비재생산(non-productivity)이라 칭하기도 한다. 즉, 모든 장소의 어메니티는 다른 장소의 어메니티와 구분됨으로써 각각 그 지역만의 고유성을 지니며, 다른 곳에서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농촌어메니티는 비가역성(比可逆性, irreversibility)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의 간섭에 의해 훼손 또는 파괴된 어메니티를 초기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인위적으로 어메니티를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 재생품은 원상태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 특히, 농촌어메니티는 인간의 간섭에 의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어메니티의 활용이나 개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농촌어메니티는 비경합성(non-rivality)과 배제 불가능성(non-excludable)을 지니고 있다. 어메니티는 일반적인 시장재와 달리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전유할 수 없는 공공재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비경합적인 공공재의 공급은 개별적 소비에 의해 효용이나 가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비경합적인 특징을 지니는가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따라 폭넓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는 어메니티는 완전한 비경합성을 지닌다. 반면, 물고기나 임산물 등은 수확량에 따라 감소하므로 경합성을 지닌다. 때문에 대부분의 어메니티들은 비경합성과 경합성의 중간 어디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특정한 지역의 경관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마음껏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어메니티의 배제 불가능성이다.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메니티 시장을 형성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곤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유재는 배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배제 가능성이 바로 그 재화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특권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을 만드는 토대가 된다.

넷째, 농촌어메니티는 무임승차(free-rider)의 대상이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어메니티가 소비의 비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어메니티가 가격차별화가 불가능한 공공재라는 것이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어메니티의 이 같은 속성 때문에 형성이나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소공급될 소지가 많으며, 그래서 공공이 정책적으로 공급, 창출, 조성하는 등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어메니티의 경우, 이러한 무임승차자를 통제할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잡 유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농촌마을의 어메니티를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의 기초한 농촌개발은 공공부문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섯째, 농촌어메니티는 소득에 대한 정상재(正常財)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높은 소득탄력성(high income elasticity)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어메니티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속성을 지닌다. 양질의 환경가치, 문화가치를 지닌 어메니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여섯째, 농촌어메니티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지니고 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및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한다. 적극적으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화, 관광 등을 통하여, 소극적으로는 기업입지 등을 통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한편, 어메니티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해서는 영토적 외부효과(territorial externality)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메니티가 자산가치로 자본화되는 경우, 특정한 지역의 어메니티 편익발생 모두에 대한 가치를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농촌경관을 향유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거나, 그 경관을 보기 위하여 규칙적으로 방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메니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가치실현의 영토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고 내부화하는 문제는 어메니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어메니티와 관련된 이용가치나 비이용가치는 접근거리에 따라 감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메니티는 비교역성(non-tradeability)을 지닌다. 비교역성이란 일반적으로 어메니티는 소비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간에 무역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표 II-7> 농촌어메니티의 특성

구 분	특 성
장소 특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나 지역간 비대체성 • 소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으로의 이동 필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임승차로 인해 지역적 편익이나 부가가치 창출보다 과소공급, 활용으로 인해 '장소정책' 필요
비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되거나 파괴된 어메니티의 복원이 어려움. • 개발 및 활용에 신중한 접근 필요
소득의 정상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수준 및 소득 향상에 따라 수요가 증가
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지역발전 요소

자료 : 김현호·오은주,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p.13.

나. 농촌어메니티의 의의

1) 농촌개발정책의 변화

도·농간의 격차 심화 등에 따른 반성과 여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농촌개발의 방향도 이전과는 현격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개발의 새로운 방향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요 흐름들을 보면, 첫째, 농촌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질성(heterogeneity)은 농촌개발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특산물과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cultural marker)를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의 발견(invention of tradition)을 통한 지역 차별화를 이루는 농촌개발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

이다.

이 같은 흐름은 농촌개발방식 또는 정책 측면에서도 변화를 낳고 있다. 즉, 농촌의 가치를 다양성과 다면성에서 파악하고 내생적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발방식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촌개발을 위한 주요 접근방법으로는, 상향식 접근정책, 내생적 개발정책, 통합농촌개발정책,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¹⁰⁾.

가) 하향식 접근정책

농촌개발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상향식과 하향식에 대한 논의는 가장 전통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다. 과거에는 외생적 개발모형이 농촌개발에서 지배적인 모형이었다. 그러나 현재 농촌개발에 있어서 중요관심은 지역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의상달식 계획과정을 통하여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각 농촌지역사회의 지리적 조건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정책은 농촌지역에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상의하달(top-down)식보다 하의상달(bottom-up)식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자원은 소규모 농가나 소규모 가내산업, 영농의 다각화, 주민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기술지원 접근법이나 갈등관리적 접근법을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한 자조적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나) 내생적 개발정책

그동안 농촌지역사회개발정책은 산업사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던 도시 중심적인 사고의 편향 속에서 다루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농촌지역은 도시민들을 위해 자원과 오락을 제공하는 장소로 위치정해 진다. 내생적 농촌개발 접근법은 일정

1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 정책, 2005. pp.24~30.

지역의 특정한 자연적, 인적, 문화적 자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적 힘에 대응하여 농촌성은 내생적 발전을 위한 농촌개발 모델로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 점차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농촌개발 방법은 지역 자체의 본질적인 질과 자산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생적 농촌개발 모델에서 핵심적 요소는 파트너십, 지역사회 참여, 활력, 역량강화 등이다. 이 같은 내생적 발전 접근법이 주목을 받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1970~80년대에 어떤 특정 농촌지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이들 농촌지역이 성공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의 보존, 신축적인 노동시장, 역동적인 소기업 네트워크였다. 이들 농촌지역의 성공요인에 주목하여 내생적 발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망을 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주의 운동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이 운동은 이전 농촌정책의 실패를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성으로 보고 이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농촌을 개발하고자 시도한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촌의 다양성을 창출하고, 지역의 내재적인 사업들을 지원하며, 지역주도적인 시책들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경제적 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전통적인 분리를 재결합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경과 경제적 활동의 토대가 되는 지역과 공동체들의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잘 보존된 농촌지역은 사회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며, 농촌공동체의 활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넷째, 자립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급진적 환경주의자들과 개발주의자를 통해 활성화되었다.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힘으로부터 농촌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의 자립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다)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책

지역 단위에서 자치단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은 요약함으로써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책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운 정책환경은 리더십이나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초래한다. 둘째, 지역의 재정이나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 속한 자치단체에 평균이하의 세수확보와 평균비용 이하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넷째, 농촌의 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단위에서의 정책결정자는 부족한 자원 여건에서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앞장서서 예시하여 선보이고 그 산업이 발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정책(locally based policy)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

라) 농촌 협치정책(rural governance police)

농촌정책이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되고 있다.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은 농촌개발정책을 배분하고 협치를 이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농촌개발을 위해 농촌지역사회 기초단위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파트너십은 공·사적 부문과 자원 봉사 영역들 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와 같은 공적 부문에서 주도하는 농촌개발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십은 농촌개발에서 농촌지역의 민감성을 증진하고, 자금동원 기회를 증가시키며, 대중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축소시키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또한 그로 인한 복잡성의 문제, 책임성이 불명확해지는 문제, 파트너십의 조직화, 권력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은 대중의 참여와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농촌개발정책의 변화상은 농촌개발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즉, 농촌개발을 내용으로 보느냐, 과정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농촌개발을 내용으로 보는 것은 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농업개발, 경관관리, 문화축제 활성화 등이 중시된다. 반면, 농촌개발을 과정으로 보는 입장은 주로 실천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농촌개발의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개선과 이를 위한 농촌주민의 역량강화와 조직화가 중요하게 고려

된다. 현실의 농촌개발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달성되어 성취된다 하겠다.

2) 농촌어메니티 수요증대 배경과 의미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농촌발전이나 농촌개발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복지에 대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제시하여 농촌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제도와 자원을 재생하거나 활성화하여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삶의 질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농촌지역사회의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산재하는 자원, 농촌다움을 드러내는 특화된 자원 즉,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 발전 인자로서 어메니티가 주목받는 배경으로는, 세계화에 의한 장소의 중요성 증대 측면, 경제의 지식기반화 측면, 양질의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증가 측면, 거주요소와 기업요소의 상합 측면 등이 고려될 수 있다¹¹⁾.

가) 장소특수성의 중요성 증대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어메니티의 중요성 증대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세계화의 요체는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경제의 지구적 통합’이다. 세계화에 따라 고도의 입지자유성을 지니게 된 정보기술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비용 최소화 원리에 기반한 토지나 노동 등 전통적인 요소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입지자유성을 지닌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조절권한이 약화 내지 퇴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 하위지역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이동성을 지닌 경제활동 등 발전주체에 의한 ‘공간동질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특정한 지역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자원이나 어메니티 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장소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를 추동한 고도기술에 의해 동질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장소가 단시일 내에 모방하거나 창조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

11) 김현호 외, 전계서, pp.17~22.

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시적 맥락에서는 세계화라는 장소 동질화 요인이 그 대극(對極)에 있는 어메니티란 장소 특수적 요소의 지역발전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며, 농촌이라는 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이라는 지역만이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것을 매력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어메니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세계화를 추동한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화 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어메니티의 지역발전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조업 시대에는 물류비, 교통비, 거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물적 자본, 인프라 등이 지역발전에서 중요했다. 그래서 삶에 관련된 어메니티 등은 부차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어메니티는 산업화시대의 병폐인 환경악화로 인한 공중보건관리의 수단 정도로 머무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지식, 창의성, 아이디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전통적인 지역발전요소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대신, 어메니티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의 원리가 '비용최소화의 원리', '하드 이점 원리'에서 '장소 이점 원리', '소프트 이점 원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어메니티 등 삶의 질 요소가 도시나 농촌지역을 구분하고 핵심적인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환경 측면, 지식노동자의 인프라 측면, 활용 측면에서 파악 가능하다. 환경 측면에서는 특정한 장소나 지역이 어메니티를 구비하여 양질의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하이테크 기업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거주민을 유치하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지식노동자 인프라 측면에서는 어메니티가 여가, 휴식 제공은 물론, 감수성, 아이디어, 창의성의 토대가 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활용 측면에서는 어메니티를 제품이나 관광 등으로 상품화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농촌 어메니티는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인자로 파악할 수 있다.

다) 소득증가에 따른 양질의 생활환경 수요 증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메니티는 소득의 정상재(正常財)이다. 어메니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는 속성이 있다.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삶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양질의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여가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어메니티가 주민, 특히 고소득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활수준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 변화의 요체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종래와 달리 여가, 어메니티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질적으로 고양된 생활로의 가치관 변화도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배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농촌체험이나 녹색농촌관광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라) 주민과 기업의 입지요소 공유성 증가

제조업시대에는 산업입지 요소와 거주민의 주거입지 요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다. 즉, 기업은 주거지와 분리해서 입지했다. 그 결과가 상호간 토지이용의 용도분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이 지식기반화 되고, 소프트화 함에 따라 종래의 산업측면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y)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입지와 기업입지 요소 간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으며, 어메니티 등의 삶의 요소가 이들의 공통적인 입지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지역발전에 중요한 하이테크산업 및 골드칼라 거주민의 입지에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반대로 하이테크와 골드칼라 등이 입지해 지역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경우라도, 어메니티 상황이 나빠지면 기업이나 거주민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지역발전에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메니티의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지역발전 인자로서의 농촌어메니티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도시나 농촌에서 이루어져온 대부분의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어메니티를 창출해내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또한 농촌관광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경제 발전 방안들도 대부분 어메니티 자원을 기본요소로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환경자원과 경관요소, 역사·문화자원, 농·특산물 등은 모두가 농촌관광 대상이 되는 어메니티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메니티에 기반한 농촌지역 발전전략은 여타 유사한 발전방안들을 아우르는 총체적이며 개념적인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특정 지역, 특정 자원에만 한정되는 구체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역, 모든 자원에 적용 가능한 개념적인 전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지역발전모형과는 다른 관점, 다른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어메니티의 중요성은 종래의 전통적인 지역발전모형과 달리, 어메니티가 지역발전의 주요한 경쟁이점 요소로 부각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에 기반한 농촌지역 발전전략은 종래의 양적 성장에 기반한 발전전략과 달리 '질적 발전'(quality-based development) 전략의 위상을 차지한다. 즉,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메니티에 기반한 질적 발전 전략은 기존의 전통적 지역발전전략과 전략의 배경이 상이함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양적인 가치 대신 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의 원리로는 효율성이나 비용최소화보다 환경과 역사문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활환경이나 어메니티 창출·공급 측면이 과거에는 부차적이며 국가평균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이제는 주요한 것이며 지역 최상의 공급을 겨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겠다.

또 발전의 방식이나 주체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래에는 중앙주도의 정책활용이나 자원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어메니티 지역발전 전략에 있어서는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 전략을 추진하는 특성이 있다. 즉, 과거 하향식 발전방식에서 상향식 발전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더불어 내발적 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국제화에 따른 반향과 함께 부각된 지방화의 진전 등 시대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어메니티의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은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전략은 어메니티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소극적 전략은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 전략은 어메니티를 상품화하여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는 어메니티 자원을 직접적으로 상품화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보다 덜 직접적인 방식은 기업활동에 유리한 어메니티를 정책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 전략은 어메니티를 공간계획에 적용하여 거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주거입지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향가치에 따라 어메니티의 활용유형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8> 지향 가치에 따른 어메니티 활용유형

구 분	활 용 내 용
생활환경 개선형	• 어메니티를 공간계획 원리로 활용
부가가치 창출형	• 어메니티를 상품화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발전에 활용
복합형	• 어메니티를 생활환경 개선과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

하지만 소극적 전략 또한 새로운 어메니티를 창출함으로써 여타 경제적 활동과 연계시킬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 간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면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 결과로서 확연히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 어메니티 전략의 이 같은 특성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공간계획과 특정 자원의 활용 등은 각각 어메니티 전략이면서 보다 큰 의미의 어메니티를 창출해내는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자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계획구상이 필요하다.

이 점은 어메니티 발전전략의 개념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타 개별적인 농촌발전전략들이 어느 한 요소에 치중하는 단면적 전략이었다면, 어메니티 발전전략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게 될 전략의 현실화 과정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면서 참여주체 면에서도 다원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현실화가 가능하다. 때문에 어메니티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수단들은 상호 연계될 때 보다 효율적인 어메니티 형성전략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농촌어메니티 형성전략

농촌어메니티 형성전략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OECD에서는 어메니티 시장거래 촉진, 집단행동 촉진, 규제 및 인센티브 등을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다.

가. 어메니티 시장거래 촉진전략

1)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 형성 촉진

어메니티와 관련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거래행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의 형성 촉진, 어메니티 관련 상품시장의 형성 촉진, 어메니티 소유권의 상품화, 어메니티 가치 현실화와 관련된 농촌기업 지원 등의 방안이 있다.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의 형성 촉진이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그 이용에 대하여 수혜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방문객들이 농가에서 민박을 하고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게 하여 그 대가를 직접 지불하게 하거나, 주차권, 허가권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¹²⁾.

이처럼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은 생산자들에게 소비자의 선호에 적응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다른 모든 시장과 동일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도 몇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에서 직접적인 이용자들만 지불한다는 문제점이다. 즉, 어메니티로부터 비이용가치를 얻는 수혜자들은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이 무임승차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직접 이용자에 대해서는 방문자들에게 접근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농촌어메니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도록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

둘째,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은 원래부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오던 공동유산에 대한 접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에 거부하는 시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또한 어메니티 이용권 시장은 어메니티에 접근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 이용자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2) 어메니티 관련 상품시장 형성촉진

어메니티 관련 상품시장의 형성 촉진이란 라벨 부착상품(labelled products) 시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전통 수공예품과 신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 등이 그 예가 된다. 라벨 부착상품의 의도는 틈새시장(market niche)을 활용하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있다. 상품을 특별한 경관이나 문화 전통 또는 역사적 기념물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에 연결하는 전략은 틈새시장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OECD의 지적이 있듯이, 어떤 어메니티가 상품이 지닐 수 있는 좀 더 높은 시장가치의 원천이 된다면 생산자들은 어메니티 유지·관리와 보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상품판매로부터 오는 소득은 해당지역의 개발에 연쇄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12) 조상필, 전계서, pp.53~60.

어메니티와 결합되어 가격에 프리미엄을 부가하는 품질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품질(internal quality)로서 이는 엄격히 말해서 어메니티 그 자체가 상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디자인이나 소재는 수공예 생산물에 결합되어 미학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수공예 상품이 우수한 품질을 지니도록 한다.

둘째, 파생된 내적 품질(derived internal quality)이다. 이는 어메니티가 고유한 특성을 상품에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농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특정한 자연지역 안에서 생산됨으로 인해 건강에 월등히 좋은 속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어메니티와는 별도로 추가된 품질에 대해 지불한다.

셋째, 외적 품질(external quality)로서 이는 생산장소와 관련하여 상품과 어메니티가 무형의 방식으로 결합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령 산간지역의 농업경관이 낙농제품의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마케팅 이미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때에 추가적인 가격은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품질 유형은 두 가지 이상의 품질유형이 하나의 상품에 결합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어메니티로부터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품질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현실화하는 전략은 농촌어메니티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어떤 것은 생산자로 하여금 상품의 외적 품질에 대한 수익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비이용가치에 대해서도 자본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비록 상품에 대해 어메니티와 관련된 프리미엄을 수취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메니티를 공급하거나 유지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 등에 세금을 부과하여 경관을 유지하는 지역농민들에게 그것을 되돌려주는 등 정책적으로 판매자의 이익 중 일부를 어메니티 공급자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을 도입·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소유권의 상품화 형성촉진

소유권의 상품화는 어메니티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실물자산 시장을 경유하여 소유권을 모두 이전시키거나 권리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소유자가 어메니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소유자는 양도한 권리에 대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소유권의 상품화 방법의 성공 여부는 시장의 유연성과 저가의 추진비용에 달려 있다. 예컨대 그와 같은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확인되어야 하며, 매매계약과 관리계약이 성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때때로 매우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데 공급자와 수혜자가 널리 퍼져 있을 때 가능하다.

4) 어메니티 관련 농촌기업 지원

어메니티 가치 현실화와 관련된 농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공급자들이 어메니티로부터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을 돕는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다른 지역의 유사한 어메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가시성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어떤 어메니티들은 관련 농촌기업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비하여 다른 어메니티들은 다른 지역의 어메니티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광여행 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집단행동 촉진전략

어떤 어메니티들에는 다수의 공급자들과 수혜자들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관은 다수의 농민들에 의하여 유지되며, 다수의 주민과 방문자들이 향유하는 어메니티이다. 이러한 어메니티의 경우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집단행동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메니티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한 제도적 틀 구축과 집단행동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집단행동에 대한 직접

지원 등의 방안이 여기에 속한다.

집단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은 정부, 지역공동체, 이익집단 등 상호 간에 긴밀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다락논 보존운동의 경우 농민들은 다락논을 지방정부에 임대하고, 지방정부는 다락논에서 일할 도시민들을 초대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다락논을 임차한 도시민들은 농민들로부터 조언을 들어가며 다락논을 경작하고 그로부터 얻은 이득을 소유하게 된다.

한편, 집단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란 정부가 집단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합행동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어메니티 공급자들과 수혜자들의 모임을 조직 또는 지원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집단행동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일단 집단행동의 조건이 창출되고 집단적인 자발성이 촉진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자금지원, 인적 지원, 교육훈련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다. 규제를 통한 어메니티 보전·형성전략

규제는 기존 소유권을 더욱 정교하게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의 목표는 소유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그에 대한 위반을 처벌하는 데 있다. 농촌어메니티로 지정과 토지이용계획, 특정 어메니티에 대한 규제, 토지 유보, 보상 등의 방안이 규제정책의 수단이 된다.

농촌어메니티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정 범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초기부터 용도별로 토지를 구획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수 세대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경우의 주요 수단은 토지를 유보하는 것이다. 즉, 토지 유보의 수단은 관련 재산들을 경제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유보는 끝까지 유보시켜 두거나 한 번의 복원기간 동안 내내 유보하는 형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만일 규제가 해당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수혜자 또

는 전체 공동체는 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 보상은 어메니티와 양립이 가능한 개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불할 때에는 소유권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르는 비용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라. 인센티브를 통한 어메니티 활용 제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비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이 있다. 먼저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목적은 개인 또는 조직들의 특정행위를 촉진하는 데 있다. 인센티브는 직접지불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벌금이나 세금과 같이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인센티브는 보존활동이 지니는 상대적 매력을 증진하고 파괴적 행위를 감소시킨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규제와 달리 경제 행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며, 개인 또는 지역단위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어메니티 공급을 위한 직접지불, 어메니티 품질과 관련된 투자에 지불, 그리고 관련 활동에 지원, 기회비용에 대한 사전 보상, 교차준수, 해로운 활동에 대한 벌칙 등의 유형이 있다.

어메니티 공급을 위한 직접지불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보상제도로써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어메니티 공급자들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어메니티 품질과 관련된 투자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어메니티 품질을 향상하고 공급을 증대하거나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25~5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때때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도 한다. 경관유지에 필수적인 구릉이나 산간지대의 영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지불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회비용에 대한 사전 보상은 어메니티에 해를 입히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어메니티 공급활동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포기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교차수준이란 생산자들에게 정부의 지불에 대한 대가의 차원에서 어메니티를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정책수단이다. 끝으로, 벌칙은 어메니티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손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다.

<표 II-9> 농촌어메니티 정책수단의 유형

유형	정책목표	정책수단
어메니티 시장거래 촉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와 관련된 직·간접적 시장거래가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발생하도록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료, 입장료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요금, 이용요금, 통행세 등 품질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표시제, 품질인증 라벨 등 소유권 상품화 어메니티 가치현실화에 참여하는 농촌기업 지원
집단행동 촉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 공급 및 수요를 조정하려는 행위자들의 집단행동을 촉진하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정책 : 집단행동이 발전할 수 있는 법률적 틀 제공 관련 행위자들의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수단 공급 및 수용 양 측면에서의 자발적 합의를 위한 협상 집단행동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조직들에 대한 직접 지원
규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의 용도와 소유권에 관련된 권리들을 결정하고 재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어메니티 지정 : 보호지역지정(공간적, 비공간적) 토지이용계획 특정어메니티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제한 : 용도지구 지정 - 어메니티 훼손 가능성 있는 행위 - 어메니티 질적 관리 - 부문별 규제정책의 조정 토지유보 : 당국이 소유권 가짐 보상수단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 공급에 대한 보상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사후 직접 지불 어메니티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외부효과로 어메니티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 기회비용에 대한 사전 보상
기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 행위자간 협조를 위한 조정 어메니티 정보제공 및 홍보 어메니티 가치증대를 위한 기술연구

자료 : 김현호 외, 2007, p.27과 조상필, 2004, p.61 참조 재작성.

한편, 비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방법으로는, 어메니티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당한 지역에 대하여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주는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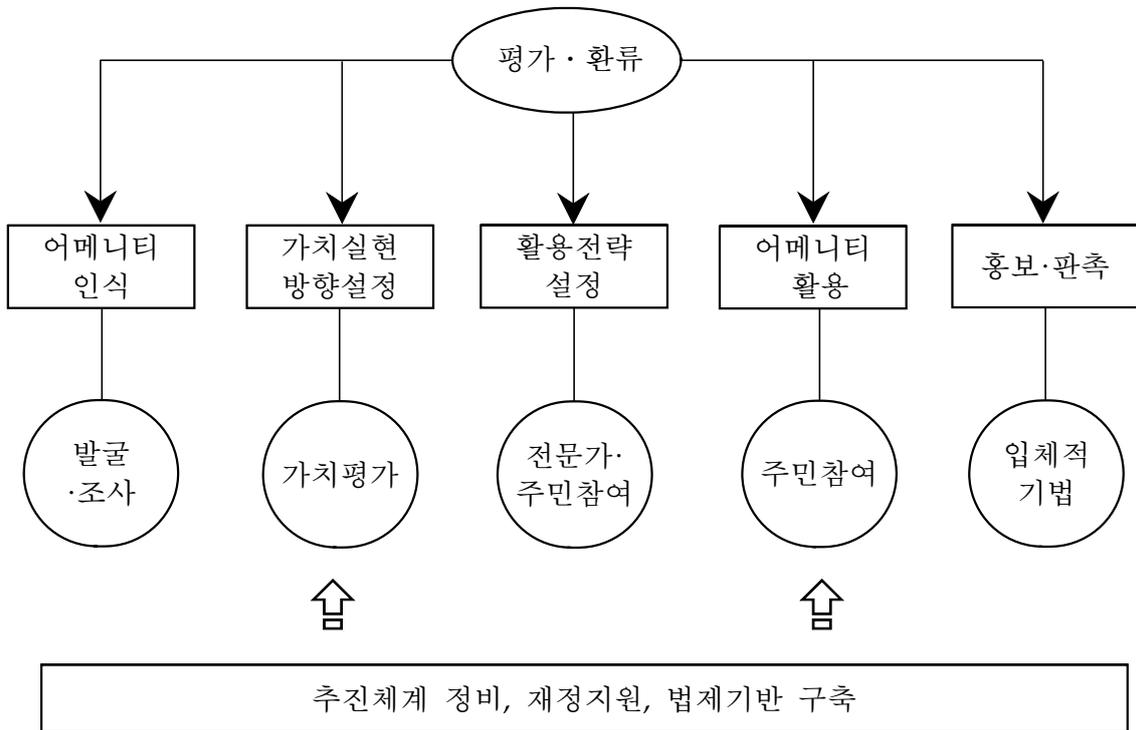
어메니티는 소비자의 효용가치를 향상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외부성(externality)이 강한 시장실패 영역에 존재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치유하고 내부화(internalization)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편익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때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공급자나 창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활용전략이 필요하다.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프로세스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어메니티 형성전략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략이 강조하는 측면이나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메니티 활용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어메니티를 창출하는 단계와 그것을 활용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어메니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메니티 창출과 어메니티 활용의 두 단계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잠재력 있는 어메니티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메니티 창출단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대신 활용단계가 중요하다. 모든 지역이 두 가지 단계 모두가 포함된 전략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지역의 여건이나 실정에 합당하게 특정한 단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어메니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어메니티 실태인식을 바탕으로 어메니티의 잠재력, 강점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어메니티를 창출, 형성해야

한다. 그 다음, 어메니티의 가치실현 방향을 설정하고 선정된 어메니티의 장점과 매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용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실행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전략 등을 추진해야 하며, 매력이나 상품을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이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정책에 환류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재창출해야 한다.



자료 : 김현호 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2007, p.29.

[그림 II-3] 어메니티 활용의 프로세스

특히, 어메니티 활용 프로세스에서 주민참여 등 협력체계의 형성이 중요하다. 어메니티 형성을 포함해서 어메니티 활용전략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비전 제시나 사업 추진, 중앙정부의 시책지원이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도 어메니티 활용의 목적달성과 효과창출에 중요한 요소이다. 추진체계의 정비는 어메니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등 '경성제도'(hard institution)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연성제도'(soft institution)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성제도 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단위에서 어메니티 활용을 효율적으로 집행·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연성제도 차원에서는 중앙의 어메니티 활용 관련 법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 관련 법제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주민차원에서도 어메니티 활용이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자치규약 등의 기반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보다 큰 차원에서 가치영역의 질적 지향, 정책형성 영역의 환경성, 역사문화성, 경제성 등이 중시되기도 한다. 아울러 어메니티 기반,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계획 및 전략형성 등의 중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어쨌든,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지역 발전전략에 어메니티 인식에서 정책시행, 평가결과의 환류에 이르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중요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메니티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Ⅲ. 농촌어메니티의 국내·외 활용사례

1. 해외사례

가. 이탈리아 투스카니

1) 개요 및 특성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투스카니는 포도밭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고급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포도 재배농가, 음식점, 판매점 등으로 다양한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와인루트'(wine route)라는 포도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코스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모아내고 있기도 하다.

투스카니는 특유의 기후 덕에 포도경관이라는 어메니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원과 유서 깊은 역사적 정취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 자원들은 관광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와인루트는 주목할 만하다. 와인루트는 일련의 포도경관 탐방코스인데, 어메니티 활용은 1996년에 제정된 투스카니 지역법이 지원을 했다. 지역법에 따르면 포도주 생산업체, 지방조직, 포도주 제조 기술자, 농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어메니티 탐방로를 고안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 탐방로에 속한 농가들은 균일하고 질 높은 포도주를 생산하도록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투스카니에는 14개의 코스가 와인루트로 개발되어 있는데, 코스마다 재배되는 고유의 포도가 있으며, 생산되는 포도주도 다르다. 방문객들은 생산농가나 포도주 창고를 방문하여 포도주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와인루트 안내표지판을 마련하고 와인박물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현장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와인루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리보르노 지방의 'Costa degli Etruschi'이다. 이 지역에는 건축미가 빼어난 중세의 마을들인 공동체 어메

니티가 남아 있기도 하다.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식들이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 같은 어메니티 공동체 자원을 활용하여 이 지역은 농업 외에도 관광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고장의 와인루트 어메니티는 리보르노 전체 면적의 80%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 파급효과가 참여 농가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양질의 어메니티를 지닌 와인루트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의 경우, 포도주나 올리브 등을 일반 농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농가를 방문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제조한 와인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어메니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수단인 와인루트를 조성한 결과, 파생적으로 방문객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나 경관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숙박시설이나 주차장, 놀이터 등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 안개에 둘러싸인 투스카니의 전원 풍경

이 지역의 어메니티 활용의 협력적 주민조직으로는 와인루트 컨소시엄이 있다. 이는 포도재배 농가, 꿀이나 오일 생산업자, 와인 바 및 상점, 레스토랑, 자

연공원, 호텔 등 와인루트와 관련된 주체들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각종 행사의 주관이나 홍보 등을 담당한다. 또한, 어메니티 상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발전요인

투스카니는 포도 및 포도경관, 역사적 지역 공동체 등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심미성 추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을 추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투스카니의 어메니티 전략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풍부한 어메니티 기반의 존재이다.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역사적으로 포도재배의 적지였기 때문에 포도경관 어메니티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동시에 이 같은 조건은 지역의 어메니티 인지도와 이미지를 향상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것이 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의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포도재배 농가는 물론, 각종 농산물 생산·가공업자, 일반 업체 등 모두가 지역의 일관되고 통일된 어메니티를 창출하기 위하여 어메니티 규제와 관리에 협력했다. 이 같은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인지도와 매력도 높은 어메니티를 창출하고 경제성 있는 어메니티 활용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와인루트 매력 형성에서 개별 가구가 조성할 수 없는 경관, 전원적 분위기의 어메니티, 방문객에게 제공할 제품의 다양성 확보, 정보센터 등과 같은 집합적 서비스의 공급편익도 이를 수 있었다. 이러한 어메니티를 활용하는 공동생활이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 확대에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와인루트의 특화에 맞추어 지역이 통일된 어메니티를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어메니티 활용을 지원하는 법제를 구축한 점도 발전요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나.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

1) 개요 및 특성

유후인(湯布院町)은 일본 남부 기타큐슈 지역의 오이타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이다. 일본 지역활성화운동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주 예시되는 지역으로 전통적인 농촌 풍경의 어메니티와 일반적인 온천 관광지와 차별화되는 체류보양지 온천을 지역어메니티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여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농촌마을 관광지이다.

또한 지역 어메니티를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지역으로도 유명한데, 원래 온천지로만 유명했던 이 지역을 '유후인 영화제'나 '유후인 음악제'와 같은 장소마케팅으로 세계적인 이벤트 장소로 만들었으며, 독특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을 건립하며 문화산업으로까지 지역 어메니티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 지역 어메니티 기반은 발상의 전환에 의해 창출된 인공적 어메니티라 할 수 있다. 농촌경관과 지역 고유의 관습, 생활양식 등이 온천과 융합되어 50년 전의 어메니티를 형성하여 일상적인 전원생활이 관광객에게 비일상적인 매력과 감동을 주어 타 지역의 전형적인 온천관광지와는 차별화하였다. 일본의 매춘금지법 제정 이후 1955년 유후인의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여 벳부권에서 벗어나 자연을 충분히 활용하고 건강하고 밝은 온천지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면서 '보양, 요양, 레크리에이션'의 3요소를 지향하는 국민보양 온천지로 지정받게 된다. 이에 벳부지역 온천이 남성중심, 밤, 대형여관으로 특성화되었다면, 유후인은 여성중심, 낮, 민박, 문화적 환경 등의 대조적 이미지를 갖는 '전원과 맛의 고향'을 구호로 내걸고 유후인형 온천관광지와 여관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1960년대 말 축산농가와 관광업자가 주축이 되어 '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소 한 마리 목장'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벤트 개최와 향토요리 개발, 소량 다품종의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면서 유후인 브랜드를 창출하였다. 유후인에서 개발한 포도를 발효·숙성시켜 생산한 유후인 브랜드인 와인은 널리 알려져 있다.



▲ 유후인의 노천 온천 ‘해지옥’



▲ 유후인의 마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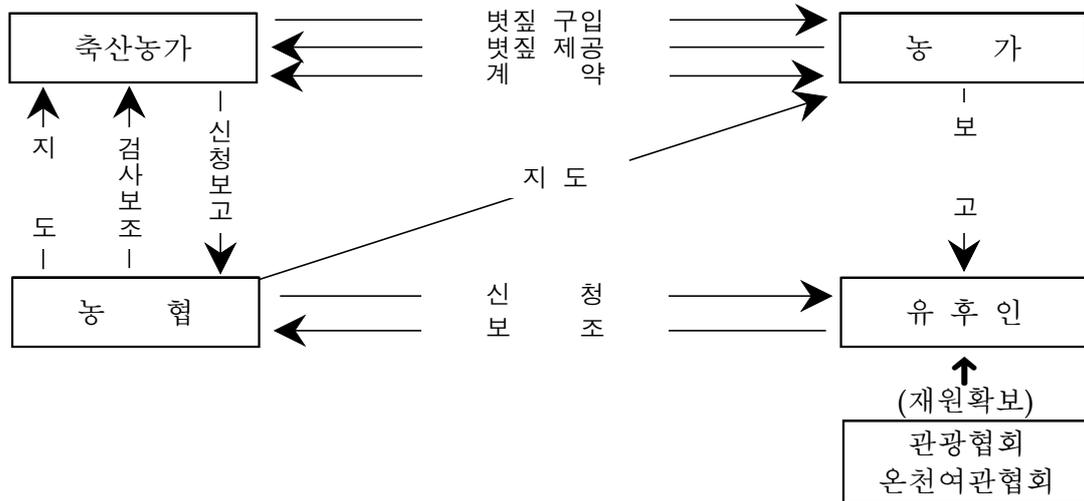
▲ 민박시설



▲ 관광마차

특히, 전통적인 농작법인 벼단 말리기(가케보시)와 벼짚 쌓기(와라코즈미)는 유후인의 겨울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이 지역의 개성을 창출한다. 이는 기계화로 인하여 이 지역 특유의 농촌 겨울 경관이 점차 상실되자 1991년 전통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경관보존 벼짚 확보대책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그림 III-1]의 개념도와 같이, 자연건조 및 보존·관리되어온 벼짚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농협에 보조금을 주고, 농협은 축산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벼농사 농가는 벼짚을 관리하고 축산농

가는 벚짚을 구입하여 사료 등으로 사용한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광협회 등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자료 : 김현호 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2007, p.87.

[그림 III-1] 유후인 농촌경관 어메니티의 활용 개념도

인근의 세계적인 온천관광지로 유명한 벚푸시와 비교해보면 지역규모는 비슷하지만 인구는 유후인이 1/10 수준이며, 두 지역 간 이미지는 대조를 이룬다. 활기차고 환락가가 많은 벚푸시에 비해 유후인은 네온사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골의 풍경으로 여성들과 고령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정서적 이미지를 준다. 이는 주민 주도의 차별적인 지역이미지 만들기가 농촌어메니티를 지역관광 자원에 연계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단위의 이벤트를 국가정책화한 이후 유후인에서도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고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유후인은 이 지역이 속한 오이타현의 평균 산업별 취업자 구조와 비교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는 오이타현의 평균치를 훨씬 못 미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는 약 15%나 상회하며,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관광산업부문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많은 낙후지역들이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전통적인 정책과 다르며, 유후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관광산업을 지역진흥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전요인

유후인은 공공투자나 기업유치에 의존하는 과거 지역경제 진흥책에 머무르기 보다는 지역의 전통적 농촌풍경 어메니티를 온천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활동에 연계시켜 부가가치를 올리는 등 성공적인 지역 어메니티전략으로 발전하였다.

발전요인으로는 첫째, 유후인 지역 내 '일촌일품운동'과 '마을만들기 운동' 등은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지는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여 내발적 발전으로서 어메니티를 지역발전 요인으로 활용한 점이다.

둘째, 농촌경관과 지역 고유의 관습 및 생활양식 등과 관광요소인 온천의 융합은 시골 풍경의 어메니티를 형성하며 유후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비일상적인 매력과 감동을 주어 타 지역의 온천관광지와 어메니티 활용전략을 차별화시킨 점이다. 특히, 전통적인 농작법인 벼단 말리기와 벼짚 쌓기는 이 지역의 겨울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유후인의 고유 이미지를 창출한다.

셋째, 지역 어메니티를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온천지로만 유행했던 지역을 영화제와 음악제 등 세계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한 점이다. 또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와인 개발(Yufuin Winery)와 '4계절 자연을 피부로 느껴봅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웅대한 유포악(由布岳)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Harvest Farm의 호텔과 Agri-guest Cottage 클럽제 등 새로운 형태의 별장형 민박시설 운영, 식품판매장, 전통 수작업으로 제작한 토산품 판매, 과자공방 운영 등 다채로운 연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온천자원 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여러 조례를(자연보호조례, 모텔 유사시설 등 건축규제 조례, 주변환경보전 조례, 윤기 있는 지역만들기 조례 등) 제정하여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마을주민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유지·향상에 기여해 왔다는 점이다.

다. 일본 미야자키현 아야정(綾町)

1) 개요 및 특성

미야자키현 중심부에 위치한 아야정은 상록광엽수인 조엽수림이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큐슈중앙신지국정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아야정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1988년 일본 최초로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1세기를 전망한 새로운 농업·농촌 만들기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업 근대화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을 반성하고 농산물의 안정성과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 농업의 기준 설정, 기준의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의한 인정방법 등 일련의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라벨 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유기농업에 필요한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면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주민의 반응이 좋아짐에 따라 이를 점차 확대하여 자연생태계 유기농업을 마을단위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같은 자연생태계농업에 관한 각종 사업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유기농업추진회의, 유기농업실천진흥회, 이사회, 부락단위 실천조직 19개 지부와 유기농업부인회 등이 결성되었다. 보급기관으로는 유기농업개발센터도 설치되어 있다.



▲ 아야정의 야채밭 전경과 자연생태계 농법으로 생산한 야채

생산된 자연생태계 농산물의 일반적인 유통은 지금까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산지 제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등 다양화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우선 현지에서 소비하려는 이른바 산지소비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마을 내 공공시설을 비롯한 학교급식의 식품원료 대부분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아야정이 지향하는 자연생태계 농업의 농산물도 JSA 규격에서 정하는 유기농산물과 동일하지만, 2001년부터 유기농산물의 생산자 등을 인정하는 등록인정기관으로서 업무를 개시하고 있고, 생산행정관리자 및 제조업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생산·관리방법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정 후에도 생산행정관리자 및 제조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감독하고 있다.

또한, 소주, 공예품, 전통의복 등 아야정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문화들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다.



▲ 아야정의 소주공장(좌) 및 공산품(중)과 특산품(우)

2) 발전요인

아야정의 어메니티전략에서 두드러진 점은 일찍부터 친환경농업을 마을의 미래비전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즉, 농산촌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자연환경의 청정성을 강조하여 농업과 산을 배경으로 하는 경치를 관광산업에 이용하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를 유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소 한 마리 목장 운동', 관련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도농교류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한 관광농업의 창출과 지역 전래의 문화를 살린 공산품과 특산품의 다양한 개발도 아야정 어메니티전략의 발전요인이라 할 수 있다.

라. 일본 가고시마현

1) 개요 및 특성

일본 가고시마의 흑돼지는 약 400년 전 중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거쳐 가고시마현으로 이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후 가고시마현의 풍토와 밀착되어 개량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5년까지만 하더라도 가고시마의 양돈을 흑돼지 일색이었지만 1965년 이후부터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대형종으로 바뀌면서 1986년 즈음에는 전체의 3.2%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소비자들로부터 고품질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고시마 흑돼지가 높게 평가되어 가고시마 흑돼지의 붐을 타고 양돈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고시마현에서는 흑돼지 진흥을 위하여 1971년 이후 흑돼지에 의한 계통돈 조성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1990년 가고시마현 흑돼지 생산자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이듬해에 이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가고시마 흑돼지 증명제도'를 개시하였다.

가고시마현 흑돼지생산자협의회가 정한 기준을 보면, 첫째, 생산자가 하나가 되어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흑돼지고기를 생산하고 가고시마 흑돼지의 상표를 확립하기 위해 '가고시마현 흑돼지생산자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의회에서는 가고시마 흑돼지를 가고시마현 내에서 생산·비육·출하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미국계의 바크셔는 육질이 떨어지므로 가고시마 흑돼지라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계통돈은 일정 규모(개량 수돼지 10두, 암돼지 60두)의 기초 집단 중에

서 기초 돈끼리 교배에 의해서 생산된 종자돼지의 품질을 검증하여 우수한 형질을 고정하는 조작을 대략 7세대 걸쳐 반복함으로써 만들어낸다. 제 1계통돈 '사쓰마'는 발육을 주제로, 제 2계통돈 '뉴사쓰마'는 육질의 향상을 주제로, 제 3계통돈 '사쓰마2001'은 번식성 향상과 발육과 적색 고기의 비율 향상을 주제로 계통이 이루어졌다. 어느 개체이든 '사촌'의 혈연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유전적 능력의 이탈이 적고 품질도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 3종의 계통돈에 의한 계통한 교배와 재래 흑돼지와 교배에 의해 맛있는 가고시마 흑돼지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고시마현에서는 흑돼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고구마를 사료로 먹이기도 하여 가고시마 흑돼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가고시마의 또 하나의 명품이라 할 수 있는 고구마를 사료로 먹인 돼지와 그렇지 않은 돼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가고시마 흑돼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즉, 고구마를 먹은 흑돼지 육질에 포함된 지방인 녹는 온도와 지방산 함유량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종과 비교할 때 지방을 분해하는 온도가 1.4배 높기 때문에 끈적거림이 없고 깨끗하다.

그리고 가고시마 흑돼지는 근섬유가 가늘다는 특징이 있어 고기를 씹을 때 맛이 좋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준다. 육질 가운데는 보수성(保水性)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지방조직의 수분함유량이 적어 수포가 없으며, 중성당과 아미노산 등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의 함유량이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같은 품질의 우수성은 곧바로 높은 판매가격으로 이어진다. 가고시마 흑돼지는 일반 돼지와 비교하여 1.7배, 다른 지역 흑돼지와 비교하여 1.3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때문에 유사 돼지고기가 가고시마 흑돼지로 탈바꿈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증명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산지에서 가고시마 흑돼지는 양돈농가의 이름을 딴 '○○의 가고시마 흑돼지'를 양돈하면서 배합사료와 함께 고구마를 일정기간 동안 먹인 것에 한하여 상표등록 시 '가고시마 흑돼지 증명서'를 발부한다. 양돈농가가 부착한 증명서는 이후 가공공장, 판매점까지 유통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속 부착

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점에서 다시 양돈농가로 증명서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가고시마 흑돼지 증명서는 가고시마현 흑돼지생산자협회의와 가고시마현 농정부 축산과가 공동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생산자명·출하년월일·증명서번호를 기입한 가고시마 흑돼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증명서는 가고시마 흑돼지 브랜드 산지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가고시마브랜드 산지로 지정된 생산자 그룹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고시마 흑돼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고시마현 흑돼지 생산자협회가 인정하는 판매지정증명과 함께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가고시마 흑돼지 지정판매점의 이점으로는, 우선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을 비롯하여 산지와 생산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경로가 명확하며, 소비자로부터 생긴 불만사항에 대하여 산지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브랜드 마크가 들어 있는 증명서, 판매점 지정증명, 지정점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 가고시마 흑돼지 증명서



▲ 가고시마 흑돼지 지정판매점 간판

2) 발전요인

감소추세에 있던 가고시마 흑돼지를 유명하게 만든 요인으로는 우선, 고품질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흑돼지를 우수한 품종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계통돈 생산에 이어 계통돈 간, 또는 재래종 흑돼지와의 교배를 통하여 향상된 품질로

균일화하는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가고시마 흑돼지의 기준을 마련하여 생산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장 차별화의 모토로 삼았다.

이 같은 노력을 전개하기 위해 '가고시마현 흑돼지생산자협회'를 설립하고 브랜드 창출과 증명제도의 도입을 통해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타 지역의 일반 돼지 및 흑돼지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다시 말해, 품질의 우수성에 더하여 확고하고 명확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 특히, 소비지에서의 유통상 혼란을 막기 위해 판매점을 지정하고 증명서와 간판을 게시토록 하는 등 철저한 유통관리를 통한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도 발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사료로 먹여 다른 흑돼지와 차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홍보함으로써 가고시마 흑돼지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요인으로 삼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국내사례

가. 왕피천 유기농생태마을

1) 개요 및 특성

'Green Eco Community'라 불리는 울진군 왕피리 한농마을은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존지역인 왕피천 일대의 왕피리를 중심으로 12개 자연마을에 조성되었다. 경북 영양군과 울진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흐르는 67.75km의 왕피천은 1급수에 만 서식하는 버들치와 연어, 은어가 회귀하며 수달과 산양을 비롯한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는 남한 제일의 야생낙원이다. 하천의 상류나 중류는 산간협곡을 이루어 평지가 거의 없으나 광천과 매화천이 합류하는 하류에는 넓은 충적평야가 펼쳐져 환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 동강보다 1.6배에 달하는 왕피천 유역은 울진 주민들조차 두메산골로 부를 정도로 외진 곳이다. 바로 이

러한 환경적 특성이 이 지역의 주요한 어메니티 자원이다.

‘한농마을’로 잘 알려진 유기농생태공동체는 (사)돌나라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으로 경북 울진지부(서면 왕피리)를 중심으로 청송, 강원도 평창 등 전국 10여 곳에 유기농업을 토대로 하여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뿐 아니라, ‘병든 땅을 회복하고, 병든 몸을 회복하고, 병든 맘을 회복’하는 ‘지구환경회복운동’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 유기농생태공동체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즉,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친환경 농법과 그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1994년 ‘한국농촌복구 청년불빛회’ 창립 이후 1995년 경북 울진에 한농 천연농법 미생물연구실 설치, 1996년 국내 10개 유기농업단지 ‘영농조합법인’ 법인등록, 2002년 사단법인 돌나라 한농복구회 농림부 법인등록, 2005년 울진 한농마을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통하여 같은 해 울진·청송 한농마을은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한농마을 울진지부는 왕피천을 따라 12개 마을의 주민 900여 명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삼무(三無)농법 즉, 무농약, 무제초제, 무화학비료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원래 왕피리 주민은 극소수였으나 한농 회원들이 1994년 들어오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농사 시작한 이래 350여 가구로 늘어난 것이다.

한농마을의 목표는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위해서 지역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생물다양성의 보존, 지역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부체계 개발 등 연구, 둘째, 전통적 현장 중심의 농업지식과 지혜에 현대적인 농업생물학적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유기재배기술을 발전시킨다. 셋째,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농 비료와 유기농 약재의 적용시험 또는 신자재를 개발함으로써 유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것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가) 왕피리 유기농업생산단지 개요

왕피리 유기농업 생산단지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유기농생태마을과 경종농업단지, 유기축산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와 체험학습장, 축산분뇨통합자원화센터 등이 유기농업생산단지와 유기적인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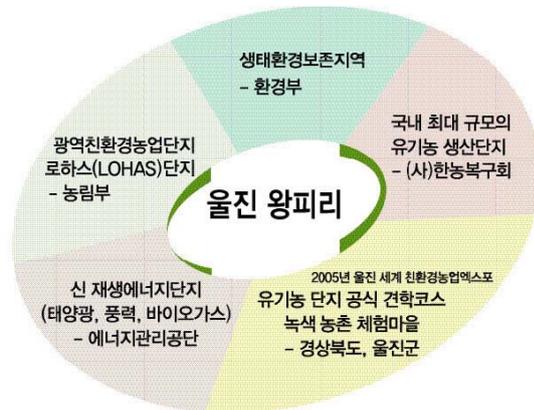
계를 맺고 조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성은 왕피리유기농업 생태단지가 (사)한농복구회가 중심이 된 국내 최대의 유기농생산단지를 핵으로 농림부가 지원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로하스(LOHAS)단지과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지정한 유기농단지 공식견학코스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단지, 환경부가 관리하는 생태환경보존지역 지정 등이 하나의 큰 그물망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경종농업단지에는 산지유통센터, 유기농쌀정미소, 유기농업연구소 그리고 유기농교육장 등이 들어서 있으며, 유기농생태마을의 실현을 위해 톱밥변기의 실천과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친환경세계 사용 등이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체험학습장에는 한농홍보관, 유기농식당, eco-park, 클로렐라 시범포, 금똥만들기 시범포 등이 있어 방문객들이 왕피리의 유기농업과 생태친화적 특성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나) 유기생태마을의 조성

왕피리 유기생태마을에서 이름난 것 가운데 하나가 ‘금똥 만들기’이다. 하천 오염의 주범인 수세식 화장실 대신에 ‘금똥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유기농톱밥변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내에서 좌변기처럼 사용하지만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톱밥을 이용해 인분을 퇴비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계곡 주변



나 화학첨가물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채식과 생식으로서 맛과 영양과 보기에도 일품인 한농의 음식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양지마을에는 '대형 유기농 공동발효 퇴비장'과 '지렁이 분변토 생산장', '유기양계장'이 있다. 그리고 거야마을 축산단지에서는 국내 최초로 할 수 있는 '유기한우시범단지'가 있다. 또 마을마다 시설하우스단지가 있어 사계절 제철 채소와 야채를 얻을 수 있다. 임광터마을에는 한농에서 차세대유기농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세운 '천연농업대학'이 있다. 이곳에는 '한농 자연방사차콜유정란 양계장'과 20대 청년학생들이 실습포장에서 직접 유기농사를 지으면서 유기농을 배워가고 있다. 한농본부 마을에는 쌀겨농법에 의한 유기농 벼농사 포장이 있으며 친환경생활우수 정화시설인 "미나리뿔 정수장"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시설과 체험요소들은 각지의 생산자와 소비자 단체의 방문이 줄을 잇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마을운영과 어메니티 연계사업

마을운영은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농경과 문화가 중심이 된다. 경사진 언덕에는 호박을 심어 넝쿨을 올리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노지들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농사짓고 나누어 먹는 공동 경작지로 운영된다. 집 근처의 모든 공터에는 각 가정의 개인 농장이 되어 매끼 식탁에 오를 채소 시장으로 가꾸고, 또 남은 것은 부업으로 소득원이 된다. 마을이 온통 유기농시장이 된 것이다.

일과는 공동작업과 개인작업으로 구분된다. 공동으로 하는 농장의 일과 특별부서의 일은 주간의 정상 업무시간에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개인농장은 정상 업무시간 외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농장의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식품의 가공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품목을 하루에 하지 않고 요일별로 품목을 정하고 아침에 방송하면 가정별로 공동가공공장에 가져다만 주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는 토마토 캔닝, 월요일에는 오이 피클, 화요일에는 절임 고추와 통밀가루에 찢 고추 부각, 수요일에는 피마자 묵나물, 고춧잎 묵나물, 목요일에는 들깻잎 장아찌 등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조된 농산물 가공품은, 한농마을의 유통사업부인 삼근마을의 유통

사업부에서 인터넷 창구와 영업망을 통해 구매 의뢰가 들어온 것을 마을에 통보 하면 생활부에서는 필요한 가공품을 마을식구들에게서 모으거나 창고에 미리 저장해둔 것을 유통부에 가져다주면 판매하는 형태를 취한다. 판매액은 최소한의 유통 수수료만 제하고 마을에 전액 환원되는데,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농산물이나 home made 식품으로 전달하는 힘이 된다고 하겠다.



▲ 삼무농법으로 유명한 왕피리의 유기생태농업 현장

농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농법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비료, 농약, 제초제를 쓰지 않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운영 방법이다. 한농마을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농대축제 등 도농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그 예가 된다. 한농교육관 일대에서 열리는 유기농대축제는 150여 가지 유기농 음식 시식체험과 100여 가지 이상의 유기농산물 전시 및 품평행사, 각종 유기농 가공식품 전시 및 판매, 유기농산물 수확체험행사, 유기농단지 견학, 국제전통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또한, 이 지역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각종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연재료인 통나무를 이용한 집을 건축하는가 하면, 이 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활용한 왕피천 트레킹이나 메뚜기 잡이 등 자연생태체험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달, 노루, 산양 등 희귀한 야생동물의 터전이기도 한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

전지역인 울진군의 왕피천의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자연과 생태를 제대로 보존하면서 유기농이라는 농경방식 등을 어메니티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으로 삼아 성공적인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2) 발전요인

왕피천 유기농생태마을은 한농의 사업추진과 주민들의 동참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래농법과 삼무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적극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어메니티 자원을 창출하였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지역의 천혜환경과 농법, 농산물 등을 관광상품화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농대축제 등을 개최하여 도농 교류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대축제는 150여 가지 유기농 음식 시식체험과 100여 가지 이상의 유기농산물 전시 및 품평행사, 각종 유기농 가공식품 전시 및 판매, 유기농산물 수확체험행사, 유기농단지 견학, 국제전통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 왕피천 트레킹



▲ 메뚜기 잡이 생태체험



▲ 왕피리의 나무집

또한,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생산·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체계적인 협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왕피천 유기농생태마을은 농촌의 기본적인 어메니티라 할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도농교류프로그램, 농산물 가공산업,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와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나. 서천군의 '어메니티 서천'

1) 개요 및 특성

서천군은 서해안과 금강을 접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산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산어촌의 특징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음식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전체 면적의 40%인 평지에서는 쌀을 비롯한 각종 곡물 등 농산물이 생산되고 전체 13개 읍면 가운데 6개 읍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 수산업 등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리고 연간 최대 5만 톤의 동을 제련했던 장항제련소 및 충남도 유일의 공식 국제무역항 장항항구, 전국의 한다하는 소물이꾼들은 모두 거쳐 갔었다는 판교우시장 등 과거 '밤새 노랫소리로 흥청대는 지역'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번영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개발에서 소외돼 나날이 군세가 줄어들었다.

이에 서천군은 지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03년에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이로써 지역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문화자원, 농수산자원에 어메니티 개념을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서천군은 '서천군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2003)과 '어메니티 서천 만들기 종합계획'(2005)을 수립하고 어메니티자원을 발굴하고 증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종합계획에 나타난 서천군 어메니티는 자연생태자원, 역사와 문화경관을 의미하는 문화자원, 농·특산물과 축제 등의 사회자원으로 구분하고 발굴하기 시작하여 총 13개 읍면에서 총 204개의 어메니티 자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진전략과 부가가치 창출전략을 수립하였다.

서천군 어메니티 자원의 조사·선정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관찰조사는 조사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원의 특성, 관리상 문제점 등을 기술하고 촬영·녹음하여 조사했으며, 면접조사는 지역주민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문헌조사나 관찰조사로 찾아내기 힘든 전설이나 자랑거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실험조사는 대기질이나 수질 오염도 그리고 서천군의 대표적 어메니티 자원인 송림이 가

지고 있는 음이온 등을 특정하기 위해 행해졌다.

조사된 어메니티 자원은 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쾌적성, 환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각각의 잠재력과 활용가능성에 의해 분류되었다. 활용가능성 관점에서 분류된 어메니티 자원은 △직접 상품화가 가능한 자원(한산소곡주, 한산모시 등 농·특산물), △문화콘텐츠로 변환이 가능한 자원(고인돌, 돼지고기와 청상과부 등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문화역사자원)이나 송정산, 낙조 등 시각 자원 등,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자원(갯벌 체험장, 해수욕장 등 장소를 상품화할 수 있는 자원), △아이디어신상품 개발이 가능한 자원(음이온처럼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송정산 자원), △지역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자원(서천의 브랜드인 '미감캐칭' 등), △교육자원화가 가능한 자원(역사나 역사문화경관의 자원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표 III-1>에서 보듯이, 이 각각의 자원에 맞추어 △자원의 보전 및 이용부문, △정주환경부문, △경제자원화부문, △사회문화부문, △체험관광부문 그리고 △권역별 어메니티에 대하여 종합계획이 제시되었다. 특히, 경제자원화부문은 주로 농산물과 관련된 계획으로 서천이라는 지역브랜드와 서천 고유의 산업인 농업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해안 바다와 광활한 갯벌, 충남의 젓줄인 금강과 풍요로운 넓은 들, 유구한 역사와 면면히 전승돼온 전통문화는 서천군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제왕실의 비전(秘傳)인 한산소곡주, 1,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여름철 최고급 전통섬유 한산모시 등 특산품을 비롯해 풍요로운 농산물, 신선한 해산물 등 모든 것이 서천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

4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동백나무숲과 제철을 맞아 알이 빼곡히 찬 주꾸미를 소재로 한 동백꽃·주꾸미 축제를 비롯해 전국 최대의 자연산 광어 산지에서 펼쳐지는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여름철 최고급 전통섬유로 명성이 높은 한산모시를 소재로 한 한산모시문화제, 가을철의 진미인 전어가 넘쳐나는 홍원항 전어축제 등, 서천군엔 4계절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바로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 활용한 축제마케팅이다. 특성화된 축제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서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어메니티 서천을 표방하고 적극적인 축제마케팅에 나서기 시작한 지난 2002년 219만여 명에서 최근에는 600만여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표 III-1> 서천군의 어메니티 활용전략 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메니티는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 주민 및 기업 환경의 편리성, 쾌적성, 심미성 등을 확보하여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 도모
어메니티 자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3개 읍면에서 총 204개의 어메니티자원 도출 자연생태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부문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보전 및 이용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업, 어메니티 갤러리 조성, 서천갈대체험마을 조성 정주환경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항 어메니티 문화특구, 별장 개발 및 렌트사업 등 경제자원화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육묘장 건립, 어메니티 서천 브랜드의 내실화, 어메니티 김밥마케팅,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 등 사회문화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산모시클러스터 조성, 웰빙테마마을, 프리미엄 음악회, 어메니티 자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대비 등 체험관광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메니티 체험상품, 천연섬유엑스포 및 익스트림게임이벤트 개최, 어메니티 해설사 교육, 어메니티모험 테마파크 등
권역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개 읍면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 구상 - 해안권, 하천권, 문화권, 내륙권, 행정권, 지원권



▲ 서천 테마여행코스 안내도



▲ 갯벌 조개잡이 체험



▲ 서천 동백도



▲ 서천한산모시문화제



▲ 연꽃축제



▲ 서천 '동백쌀'과 '금강사랑 음악제' 홍보물



▲ 서천 해양박물관 전경

농산어촌체험관광도 활발하다. 지역의 전통산업과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한 결과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의 우수농촌전통테마마을 전국평가 대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을 비롯해 비인면 남당리 행복마을, 서면 월하성마을, 판교면 심동마을 등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스타 체험마을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성공은 주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에 가능했다. 축제 및 민박 운영자들이 학습조직을 결성해 선진지역 벤치마킹, 워크숍, 전문가 초빙 강좌 등을 적극 벌여 온 결과이다. 이에 행정은 축제 운영 및 체험관광 민간학습조직 지원, 관련 정부지원사업 유치 등으로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서천군은 최근 갯벌매립을 둘러싼 18년간의 논란을 마무리 짓고 친환경경생태도시로의 성장을 채택했다. 정부는 환경을 파괴하는 갯벌매립으로 조성되는 장항산단 대신 1조 4,000여억 원을 투입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80만평 이상 규모의 내륙산단, 서천군 SOC조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을 제시했고 서천군은 이를 수용했다. 서천군과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향후 상호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은 생물종 보전·연구시설인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최신식 관람시설이다. 서천군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부각됨은 물론, 이들 시설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내륙산단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코테크놀로지 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서천군이 표방하는 ‘어메니티 서천’의 실현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낙후성을 타하기 보단 손대지 않은 청정자연을 활용하자는 역발상을 통해 서천군은 첨단생태도시로의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2) 발전요인

서천군의 어메니티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된 가치창출을 발전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브랜드 자산이란 동일한 제품이라도 브랜드의 힘이 있는 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이득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천의 경우 ‘어메니티 서천’이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득을 모든 산업과 활동에서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타 발전요인을 간추려본다.

첫째, 서천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채택은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은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협력과 상호학습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어메니티 서천에 대한 제도화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메니티 서천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제도화가 어메니티 서천이 공허한 문구로 끝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확실한 비전, 계획 수립, 전문가의 결합, 조례의 뒷받침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메니티 관련 사업들을 지역의 관점에서 연계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인 ‘어메니티 서천 혁신마케팅’과 중앙정부 차원의 ‘어메니티 서천 씨푸드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었다. 또한, 첨단

생태단지로의 변모 준비도 이 같은 측면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문당리 생태마을

1) 유기농법의 태동과 마을발전백년계획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가 생태마을로 가꾸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대신 오리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다.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농업을 시작한 마을이며 오리를 논에다 풀어 일꾼 구실을 하게하는 오리농법을 처음 시작한 것이다. 1994년에는 처음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약잔류검사를 거쳐 무농약 품질인증에 합격했다. 1998년부터는 유기재배 단체인증을 받아 현재 연간 1만5천 가마의 유기농 벼와 무농약 벼가 홍성에서 생산되고 있다.

먼저 문당리의 연혁을 간추려보면 주민들의 노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977년 유기농업 벼농사시작, △1992년 가을걷이 나눔의 잔치 행사유치, △1993년 벼농사 오리농법 도입, △1994년 무농약 재배 단체인증 19농가 10만5천여㎡, △1995년 도농일심 함께 짓는 오리농사 오리입식행사 시작, △1996년 오리농법 작목반 구성 30농가(벼 수매 시 환경기금조성), △1998년 유기재배 단체인증, △1999년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영농조합법인 설립, △2000년 21세기 문당리발전백년계획 수립, 환경농업교육관 준공, △2002년 농촌생활유물관 준공, 홍성오리농단지 100만평 돌파(유기재배 품질 인증 430농가 115만평), 자연생태 우수마을 선정, △200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최우수상, 농업기반대상(친환경 부문 대상), △2003년 정보화 시범마을 선정(행자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농림부), △농촌마을 가꾸기 대상수상(농림부), 유기재배 벼 전문 정미소 건립, △2004년 황토 건강체험실 건립, 농촌종합개발사업 선정, △2006년 홍성오리농단지 759만㎡ 900여 농가 참여 등의 과정은 문당리가 어떠한 형태의 어메니티전략을 추진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오리농법은 오리의 특성을 이용하여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벼농사를 짓는 농사기법이다. 환경농업은 병충해 등의 문제로 인해 생산량이 떨어지

거나 잡초제거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시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오리농법은 오리들의 장점을 이용한 농법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농작지에도 환경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문당리 전경



▲ 오리농법을 이용한 벼농사

이를 계기로 한 홍동면 주민들의 남다른 마을만들기 과정과 비전은 2000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만들어낸 '21세기 문당리 마을발전 백년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부자마을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두레 공동체마을, 자연과 조화로운 생태마을을 가꾸어 나가고자 추진한 일이다.

문당리 마을발전 백년계획의 구호는 '생각하는 농민, 준비하는 마을'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실천사항들로는, 첫째, 근원의 농업으로 돌아가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자. 대를 잇는 농업이어야 한다. 희망을 부르는 농업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자세를 바꿔보자. 스스로 헤쳐 나가려는 자세를 갖자. 긍정적인 사람만이 지혜를 얻는다. 개인에서 협동하는 공동으로 돌아가자. 셋째, 화합으로 함께 하는 농업으로 돌아가자. 행정, 농업관련 단체, 기관, 농민이 하나 되어 함께 하자. 넷째, 생각하고 준비하는 농업으로 돌아가자. 중장기 마을, 농업계획을 세우자. 행정기관에 친환경계획단(농민, 행정, 소비자, 시민단체)을 만들어 함께 준비하자 등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마을이 이룬 성과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마을들과 크게 다르다. 처음부터 정부 지원에 기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호주머니 돈을 십시

일반으로 털어 이룩한 것이다. 초기에 마을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어렵게 꾸려온 갯골어린이집을 비롯해 홍성환경농업교육관 건물도 주민들이 쌀을 팔아 모은 돈으로 1만㎡의 땅을 사고 3만 개의 흙벽돌을 찍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직도 직원 3명 월급은 주민들이 모은 환경기금에서 나온다. ‘마을발전 백년계획’ 용역비 역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문당리의 환경농업시설을 보면, 홍성환경농업교육관, 교육관 식당, 교육생 숙소, 농촌생활유물관, 환경농업마을 정미소, 황토건강체험실, 농촌 체험학습장이 있으며, 생태체험 논·밭과 연꽃생태연못 등이 있다.

2) 두레공동체와 유기축산

80가구 200여 명이 살고 있는 문당리 마을에는 오리농법 말고도 특이한 것이 많다. 유기축산작목반과 쌀작목반, 청년회·부녀회 등이 있고 마을총회가 있다. 마을총회는 이장을 뽑고 마을의 사업계획 등을 함께 상의하는 자리다.



▲홍성환경농업교육관 ‘나눔의 집’



▲주민 대상 교육장면



▲환경농업정미소





▲농촌생활유물관



▲황토건강체험실

또한 징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농협 간부들과 담당직원, 작목반들로 구성된 작목회의 회장 등이 징계위 구성원이 된다.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자체규정을 어기는 것 등이 징계 대상이 된다.

마을 공동작업은 각 반마다 반장을 주축으로 실시하는데, 반장은 원칙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휴식시간에 새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을의 어른인 노인들이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 공동작업에는 가구당 한 명씩 거의 예외 없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작업에 불참하는 경우 벌금을 받고 있는데, 하루 일손값을 받는다. 남자가 있는 가구에서 불참하면 하루 일손값의 벌금을 부과한다.

마을 언덕의 환경농업교육관에는 전국 각지의 환경 및 농민단체들이 찾아와 교육과 체험을 통해 문당리 사례를 배워간다. 흥동면에는 생산자 중심의 생활협동조합인 풀무생협, 신협, 풀무고등기술학교, 정농회 등의 단체 외에 빵·요구르트 공장도 있다. 이들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이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홍성군 유기농업의 발원지인 풀무농업기술학교와 인근 마을 문당리의 남쪽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이 곳 보일러의 주 연료가 유기농을 통해 정미소에서 나온 부산물인 왕겨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홍성의 풀무학교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국내 유기농 환경공동체의 메카로 떠오른 홍성군 홍동면은 '두레식 협동'이라는 아름다운 그물을 짜내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된 유기농업과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조합 등이 지역으로 확산됐다. '지역이 학교이고 학교가 지역'이라는 이념이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이 곳이다. 환경운동가와 농민들은 공통적으로 이 곳 홍성에서 서구보다 훨씬 더 생태적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는 '오래된 미래'의 비전을 찾고 있다. 연간 1만2천 명 이상이 이곳을 다녀간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념과 의식을 가진 귀농인들이 만든 생태공동체가 아닌, 평범한 농민들이 중심이 된 홍동면이 변신을 거듭 해 지역 안에서 완벽한 자치가 가능한 공동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공해 유기쌀을 생산하는 오리농법을 들여 와 지역에 착근시킨 주역인 풀무학교와 홍동면은 이제는 공동으로 광우병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축산 실험에 도전 하고 있다. 문당리는 480여 가구가 짓는 445만5천㎡에 달하는 대규모 유기농업 지대이기 때문에 유기농 볏짚이 풍부하며 이를 소 사료로 먹일 수 있다. 초기단계에는 약 40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유기볏짚과 비(非)유전자조작식품(GMO) 사료를 먹이고 햇볕도 잘 들게 채광을 조절했다. 보통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거세를 하지만, 이 곳 소는 거세도 하지 않고 항생제도 투여하지 않는다. 유기농업을 통해 나온 볏짚을 사료로 쓰고 소에서 나온 퇴비를 유기농사에 쓰는 완벽한 순환형 유기 농업·축산을 꿈꾸고 있어 국내 대안축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주목된다.

3) 리더그룹 - 풀무학교와 지역단체들

이 지역 풀무생협도 1960년 풀무학교 학생들의 무인구판장으로부터 출발한 생산자단체다. 풀무생협은 유기축산위원회를 구성해 유기축산에 뛰어들고 있다. 홍

성군 장곡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150마리인 유기축산 소의 숫자를 열배 수준인 1,500마리로 확대할 계획이다.

풀무생협과 풀무학교, 신용협동조합 등은 협의체를 만들어 우선 지역 생산물의 5%를 지역화폐로 지급기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지역화폐 제도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곳을 유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국내 유기농의 메카로 떠오른 흥동면과 함께 작은 시골학교지만 국내에서보다 오히려 외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풀무학교 교육이다. 풀무학교는 힘찬 풀무질을 통해 대안교육과 생태농업 바람을 일으켜온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풀무학교에서는 이론과 함께 철저하게 농사짓기 등 실천 수업을 겸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로 보면 주변적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지만 생명, 더불어 사는 가치, 평화적 사회의 모습 등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농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전문대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유기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분을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대체 에너지 기술사업, 토종종자 보존사업 등을 지역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 풀무학교 전공부는 지역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환경비누를 만들고 있다.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현지에서 소비되지 않고 도시지역으로 올라가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생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풀무학교의 정신은 흥성 지역 곳곳의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분야로 뻗어나가고 있다.

농축산물가공업체 풀무사람들이 무항생제 육계인 청정닭 가공사업을 시작했고, 흥동면 일부 주민은 한우와 돼지를 기를 때 나오는 축분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취사용 바이오가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농민들과 풀무생협은 지역 어린이 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으로 유기농 음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을의 환경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조직체이자, 모임, 그리고 마을단위의 법인체인 환경보존농업시범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역할이다. 이 단체는 문당리에서 환경농업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9년에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환경운동에 대한 조직력과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마을단위의 법인체의 결성은 이 마을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마을 중심의' 환경운동, 즉 '마을 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4) 생태관광

문당리의 성과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홍성환경농업교육관 '나눔의 집'이다. 1996년부터 3년 동안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소득으로 4,500만 원의 환경기금을 모으게 되었고, 이 기금으로 환경농업교육관 부지 약 1만㎡를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경농업교육관의 건립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주민들의 예식이나 잔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면서 '마을회관'이라 불리기도 하는 홍성환경농업교육관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교육생들은 오리농기, 오리의 활동관찰, 흙밟기, 쑥캐기, 고추 모종심기, 숲 관찰, 강연듣기, 전래놀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시설로는 전통체험시설, 농기구 전시장, 쉼터가 있고, 14실의 숙박시설이 있다. 무공해 전통음식과 인절미 등 먹거리가 제공되며, 특산물인 오리농쌀, 오리농현미, 흑향미 등이 판매된다.



▲체험학습장

이 같은 프로그램은 계절의 특성을 살려 순환된다. 봄에는 나물캐기, 표고버섯 따기, 짚공예, 별관찰하기, 여름에는 감자캐기, 옥수수따기, 흙밟기, 대나무물총만들기, 가을에는 벼베기, 메뚜기잡기, 고구마캐기, 감따기, 짚공예 그리고 겨울에는 연날리기, 불깡통돌리기, 인절미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눈썰매타기 등이 진

행되며, 농촌생활유물관 관람, 그네타기, 널뛰기, 우마차타기, 황토염색 등은 연
중 이루어진다.



▲매년 6월 6일 열리는 오리입식행사



▲매년 10월 3일 열리는 '가을걷이 나눔의 잔치'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또한, 환경농업연구정보센터가 인근 운월리에 세워져 연구실, 자료실, 분석실, 준비실 등과 기자재를 들여놓았다. 환경농업역사관도 문당리에 170여㎡ 규모에 판매장, 전시관, 안내·사무실 등을 갖추고 들어섰다. 오리쌀전용도정시설 역시 올해까지 완비되는데 이는 금평리에 저장시설 500톤 2기와 도정설비가 시설된다. 또한 오리쌀건조저장시설이 문당리에 들어섰다.

전통가옥과 생태에너지 체험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동의 전통가옥은 사랑채(온돌), 재래식 외양간, 우물, 부엌, 장독대,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된다. 또한 약수터도 복원되며 물놀이시설도 갖추게 된다. 물놀이장에는 생태습지와 부대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이밖에도 기초환경시설 개선,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5) 발전요인

문당리의 발전요인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당리는 풀무학교 등 리더 그룹과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농법을 통한 친환경농업이라는 어메니티 자원을 창출해냈다는 점이다. 주민 주체의 어메니티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백년계획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였으며, 자체 마을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협업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문당리 어메니티 전략의 핵심은 생태마을에 있다. 농촌이라는 특성을 생태와 연계하고 다시 농법, 농촌관광 및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파급시켜 나간 점이다. 오리농법 등 농경방식은 색다른 어메니티 자원이 되어 체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연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셋째, 유기농법에 그치지 않고 무항생제 육계인 청정닭 가공사업을 시작했으며, 축분과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취사용 바이오가스 생산, 어린이 집과 초·중학교에 유기농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파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활성화 국내·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농촌어메니티 전략의 근간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적 여건과 농산물 등 1차 산물 자원이다. 또한, 양자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농법을 도입하고 연계사업을 개발해나가고 있다.

국외사례 가운데 이탈리아 투스카니는 포도 어메니티를 핵심자원으로 하여 특유의 경관을 연출하는 와인루트 탐방로를 통해 관광화의 기반을 닦았으며, 이와 연계한 와인 체험을 통해 농업의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리보르노 와인루트는 브랜드 창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세 건축의 마을이라는 역사문화적 환경도 투스카니의 장소이미지를 창출하는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

되고 있다.

일본 유후인의 어메니티 전략은 시골풍경과 온천휴양지라는 핵심자원을 기반으로 농촌경관 보존 벗짚 등을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이미지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영화제와 음악제 등의 관광상품화, 유후인산 쇠고기, 와인 등 브랜드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민박 운영방식을 통해 여타 지역과 차별성을 획득해 나가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미야자키현 아야정은 국내사례 가운데 왕피천 유기농생태공동체나 문당리의 사례와 같이 자연환경과 1차 산물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존과 연계한 친환경농법을 통해 내외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을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흑돼지의 경우 축산물을 어메니티 자원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타 지역 돼지고기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생산기준 마련과 확고한 유통체계의 확립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연계상품의 개발이나 관광자원화 등 어메니티 전략의 확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서천군의 경우,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역 내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일괄 조사에서부터 단계적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구축한 후 다양한 사업을 자원유형별, 권역별로 분류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 특성이나 이와 관련된 지역성, 전통성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발굴과 그에 기반한 차별화된 활용전략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농촌어메니티 전략은 자원과 전략의 차별화가 수월한 것일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어메니티 및 활용전략 선정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향후 부가가치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활용전략이 잘못 선정되면 사업의 진척도, 지역발전도 기대

할 수 없다.

둘째, 농촌어메니티를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하여 매력을 창출하고 상품화하는 전략의 활용이 중요하다.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단원다용(one-source multi-use) 전략인 셈이다. 선정한 어메니티를 통해 매력적인 생활환경과 경관 창출은 물론이고, 체험 및 이벤트, 축제, 상품, 캐릭터상품 등 다양한 차원으로 파생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농촌어메니티 기반과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가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상품과 매력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상품과 이미지는 추가적인 고객과 제품판매를 유발하고 다시 지역의 어메니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선순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어메니티의 선명성이 부각됨은 물론, 어메니티 이미지도 강화되어 이것이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로 다시 연결된다.

넷째, 농촌어메니티 활용에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협업이 어메니티전략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과 공공부문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메니티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운영과 사업 추진에 있어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지원체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부문별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별도의 리더그룹이 지역주민의 인식을 쇄신하여 참여를 이끌어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농촌어메니티 전략에 있어서 주체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농촌어메니티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 정비도 중요하다. 대다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농촌마을 등 각각의 차원에서 농촌어메니티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IV.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실태분석

1.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실태분석

가. 조사 설계

제주지역인 경우,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고 다양한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풍부한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어메니티자원을 파악·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어메니티에 대한 개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¹³⁾를 참고, 농촌어메니티자원으로 재작성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30개의 마을 리장 및 동장, 사무장, 마을회장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면접원에 의한 일대일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 마을 배치 및 분위기, 상업화·도시화 정도, 자연 상태 등 마을의 일반적 사항 항목과 어메니티 도입 및 적용, 기대효과, 사업수행 여부, 중요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나.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30명 가운데 남성은 14명(46.7%), 여성은 16명(5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30대 6명(20.0%), 40대 13명(43.3%), 50대 10명(33.3%), 60세 이상 1명(3.3%)으로 조사되었다. 마을에서의 역할은 사무장 19명(63.3%), 부락(마을)회장 1명(3.3%), 이장 9명(30.0%), 리사무소 직원 1명(3.3%)이었으며, 거주기간은 1~10년 이하 5명(16.7%), 11~20년 12명(40.0%), 21~30년 4명(13.3%), 41년 이상 9명(30.0%) 등으로 나타났다.

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2007, pp.156~173.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성	14	46.7
	여성	16	53.3
연 령	30대	6	20.0
	40대	13	43.3
	50대	10	33.3
	60세 이상	1	3.3
마을에서의 역할	사무장	19	63.3
	부락(마을)회장	1	3.3
	리 장	9	30.0
	리사무소 직원	1	3.3
거주기간	1~10년	5	16.7
	11~20년	12	40.0
	21~30년	4	13.3
	31년 이상	9	30.0
전체 사례 수		30	100.0

2) 마을가꾸기 사업현황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복수응답)은 정보화 마을 15명(27.8%), 녹색농촌마을과 자연생태우수마을 각각 9명(16.7%), 어촌체험마을 6명(11.7%), 살기 좋은 마을과 문화역사마을 각각 4명(7.4%),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아름마을 각각 3명(5.5%), 기타(중문로 활성화 방안 추진) 1명(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현재 진행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비율(%)
아름마을	3	5.5
어촌체험마을	6	11.1
문화역사마을	4	7.4
녹색농촌마을	9	16.7
농촌전통테마마을	3	5.5
자연생태우수마을	9	16.7
정보화 마을	15	27.8
살기 좋은 마을	4	7.4
기타(중문로 활성화 방안 추진)	1	1.9
합 계	54	100.0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시기에 대해 2003년 8명(27.6%), 2005년 7명(24.1%), 2007년 5명(17.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된 시기

연 도	빈도(명)	비율(%)
1997	1	3.3
2002	3	10.0
2003	8	26.7
2004	3	10.0
2005	7	23.3
2006	2	6.7
2007	5	16.7
2008	1	3.3
합 계	30	100.0

3) 어메니티 도입

현재 마을가꾸기 사업에 어메니티 개념(전략)을 도입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도입하고 있다' 22명(73.3%), '도입하지 않고 있다' 8명(26.7%)으로 나타나 도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 현재 마을가꾸기 사업에 어메니티 개념(전략) 도입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예(도입)	22	73.3
아니오(도입하지 않음)	8	26.7
합 계	30	100.0

4) 어메니티 도입 현황과 계기

마을의 어메니티 개념 도입 및 활용수준은 매우 높다 3명(13.6%), 높은 편이다

6명(27.3%), 보통이다 11명(50.0%), 낮은 편이다 2명(9.1%)으로 나타나 활용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40.9%로 낮다는 9.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 마을의 어메니티 개념 도입 및 활용수준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높다	3	13.6
높은 편이다	6	27.3
보통이다	11	50.0
낮은 편이다	2	9.1
합 계	22	100.0

어메니티 개념을 처음 추진하게 된 계기는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 17명(77.3%), 역사마을 선정 2명(9.1%), 도지사·시장의 비전과 교수나 전문가 제안, 시민단체의 제안 각각 1명(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어메니티 개념을 처음 추진하게 된 계기

구 분	빈도(명)	비율(%)
도지사·시장의 비전	1	4.5
교수나 전문가 제안	1	4.5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	17	77.3
시민단체의 제안	1	4.5
역사마을 선정	2	9.1
합 계	22	100.0

5) 어메니티 도입 목적과 활동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는 목적은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10명(45.5%), 지역 이미지 향상과 역사마을 선정 각각 1명(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는 목적

구 분	빈도(명)	비율(%)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	10	45.5
지역 이미지 향상	1	4.5
지역경제 활성화	10	45.5
역사마을 선정	1	4.5
합 계	22	100.0

지역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은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 7명(31.8%),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 6명(27.3%), 어메니티 비전 선포와 어메니티 개선사업을 계획, 어메니티 개선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간접적 지원 각각 3명(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지역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한 활동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 비전 선포	3	13.6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	6	27.3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	7	31.8
어메니티 개선사업을 계획	3	13.6
어메니티 개선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간접적 지원	3	13.6
합 계	22	100.0

6) 어메니티 도입하지 않는 이유

어메니티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4명(50.0%), 어메니티를 증진, 활용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 2명(25.0%), 어메니티보다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활용을 위한 지자체, 다각적으로 의견 절충 중 각각 1명(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어메니티를 도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4	50.0
어메니티를 증진, 활용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	2	25.0
어메니티 보다 지역소득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	1	12.5
재원활용을 위한 지자체, 다각적으로 의견 절충중	1	12.5
합 계	8	100.0

7) 어메니티 도입계획 및 시기

어메니티를 도입할 계획에 대해 계획이 있다 6명(75.0%), 없다 2명(25.0%)으로 나타나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 어메니티를 도입할 계획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없다	2	25.0
있다	6	75.0
합계	8	100.0

어메니티를 도입할 시기에 대해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2명(50.0%)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어메니티를 도입할 시기

구 분	빈도(명)	비율(%)
2008년	2	25.0
2009년	2	25.0
모르겠다	4	50.0
합 계	8	100.0

8) 어메니티 도입 시 타당한 활동

어메니티 도입 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대해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 3명(37.5%),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 2명(25.0%), 어메니티 비전 선포와 어메니티 개선사업을 계획, 어메니티 개선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간접적 지원 1명(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어메니티 도입 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 비전 선포	1	12.5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	3	37.5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	2	25.0
어메니티 개선사업을 계획	1	12.5
어메니티 개선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간접적 지원	1	12.5
합계	8	100.0

9) 마을의 어메니티자원 존재정도

선생님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의 존재 정도는 많은 편 14명(46.7%), 보통 6명(20.0%), 매우 많다 5명(16.7%), 적은 편 3명(10.0%), 매우 적다 2명(6.7%) 으로나타나 어메니티자원이 많다는 의견이 63.4%로 적다는 의견 16.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 선생님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의 존재 정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많다	5	16.7
많은 편이다	14	46.7
보통이다	6	20.0
적은 편이다	3	10.0
매우 적다	2	6.7
합계	30	100.0

10) 마을의 어메니티자원 경쟁력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 분야에 대해 1순위는 자연환경(전망, 쾌적성 등)과 생태환경(생태보존, 청정성 등)이 각각 9명(30.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는 생태환경(생태보존, 청정성 등)이 9명(30.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 분야(1, 2순위)

어메니티 분야	1 순위		2 순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자연환경(전망, 쾌적성 등)	9	30.0	8	26.7
생태환경(생태보존, 청정성 등)	9	30.0	9	30.0
역사환경(인물, 사적지 등)	1	3.3	-	-
문화환경(민속, 풍습, 곳 등)	4	13.3	1	3.3
여가(관광)환경(관광시설, 관광지, 숙박시설, 골프장 등)	1	3.3	3	10.0
오락환경(놀이공원, 주제공원, 축제 등)	1	3.3	-	-
교육환경(학교, 자연생태교육장 등)	1	3.3	3	10.0
주거환경	1	3.3	2	6.7
방법 및 치안	-	-	2	6.7
기업환경(관광업체, 농수축산 관련업체)	2	6.7	2	6.7
기타(주민의식 등)	1	3.3	-	-
합 계	30	100.0	30	100.0

11)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의 어메니티자원 활용단계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단계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고자 한다가 9명(30.0%), 초기 활용단계이다 8명(26.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5명(16.7%), 활용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각 3명(10.0%),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기타 각각 1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단계

구 분	빈도(명)	비율(%)
활용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	3	10.0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5	16.7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고자 한다.	9	30.0
초기 활용단계이다.	8	26.7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	10.0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1	3.3
기 타	1	3.3
합 계	30	100.0

12)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자원 도입 및 활용 중점사항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 중점사항에 대한 1순위는 어메니티의 관광상품화가 9명(30.0%), 2순위는 지역이미지 제고 7명(23.3%), 3순위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매 9명(31.0%)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6>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 중점사항(1, 2, 3순위)

순 위 어메니티 도입·활용사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생활여건 개선	8	26.7	4	13.3	7	24.1
여가관련 어메니티 강화	-	-	5	16.7	1	3.4
기업관련 어메니티 강화	1	3.3	-	-	1	3.4
지역이미지 제고	1	3.3	7	23.3	-	-
어메니티의 관광상품화	9	30.0	6	20.0	5	17.2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매	7	23.3	5	16.7	9	31.0
어메니티 상품의 브랜드화	4	13.3	3	10.0	6	20.7
합 계	30	100.0	30	100.0	29	100.0

13)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재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농·어촌관광산업 유치'가 12명(40.0%), '농수축산품의 브랜드화'는 6명(20.0%),

‘농수축산품 판매장 설치’ 5명(16.7%), ‘모르겠다’ 3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

구 분	빈도(명)	비율(%)
농수축산품의 브랜드화	6	20.0
농·어촌관광산업 유치	12	40.0
여행사의 관광코스화	2	6.7
농수축산품 판매장 설치	5	16.7
예술문화	1	3.3
체험학습 실시	1	3.3
없다	3	10.0
합 계	30	100.0

14) 어메니티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어메니티 도입 및 적용에 대한 항목별 기대효과는 전 항목 모두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8> 어메니티 도입 및 적용에 대한 항목별 기대효과

구 분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5점 척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지역의 문화성 증대	6	20.0	10	33.3	11	36.7	3	10.0	3.37
지역의 쾌적성 증대(환경, 경관 개선)	3	10.0	6	20.0	14	46.7	7	23.3	3.83
지역의 심미성(아름다움) 증대	-	-	6	20.0	17	56.7	7	23.3	4.03
지역의 경제성 증대(관광, 상품화 등)	3	10.0	12	40.0	7	23.3	8	26.7	3.67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	10.0	6	20.0	16	53.3	5	16.7	3.77
인구유입 유도	6	20.0	14	46.7	6	20.0	4	13.3	3.27
관광기업 활동 기여	6	20.0	15	50.0	4	13.3	5	16.7	3.27
지역 이미지 향상	-	-	10	33.3	12	40.0	8	26.7	3.93
지역의 자원 정비	1	3.3	10	33.3	15	50.0	4	13.3	3.73

이를 리커드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을 살펴보면 지역의 심미성(아름다움) 증대

4.03, 지역 이미지 향상 3.93, 지역의 쾌적성 증대(환경, 경관 개선) 3.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3.77, 지역의 자원 정비 3.73, 지역의 경제성 증대(관광, 상품화 등 부가가치 창출) 3.67, 지역의 문화성 증대 3.37, 인구 유입 유도과 관광기업 활동 기여 각각 3.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5) 어메니티 사업수행 여부

어메니티 사업수행 여부에 대해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어메니티자원 활용 관련 조례 및 법제정'이 7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9> 어메니티 사업수행 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 발굴과 경쟁력 평가 실시	있다	10	33.3
	모름	2	6.7
	없다	18	60.0
어메니티 전문가 활용	있다	11	36.7
	모름	2	6.7
	없다	17	56.7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	있다	17	56.7
	모름	2	6.7
	없다	11	36.7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있다	10	33.3
	모름	2	6.7
	없다	18	60.0
주민-전문가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있다	14	46.7
	모름	2	6.7
	없다	14	46.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있다	10	33.3
	모름	2	6.7
	없다	18	60.0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있다	10	33.3
	모름	2	6.7
	없다	18	60.0
합 계		30	100.0

<표 계속>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 관련 마을 규약 및 규칙 제정	있다	9	30.0
	모름	2	6.7
	없다	19	63.3
어메니티 지원 활용 관련 조례 및 법 제정	있다	6	20.0
	모름	2	6.7
	없다	22	73.3
합 계		30	100.0

16) 어메니티 사업의 중요도

어메니티 사업의 중요도는 항목별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리커드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을 살펴보았다.

<표 IV-20> 어메니티 사업의 중요도

구 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5점 척도)
	빈도 (명)	비율 (%)									
어메니티 발굴과 경쟁력 평가 실시	-	-	2	7.1	10	35.7	6	21.4	10	35.7	3.86
어메니티 전문가 활용	1	3.4	3	10.3	6	20.7	10	34.5	9	31.9	3.79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	3	10.3	-	-	5	17.2	11	37.9	10	34.5	3.86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1	3.6	2	7.1	13	46.4	6	21.4	6	21.4	3.50
주민전문기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	2	6.9	2	6.9	13	44.8	5	24.1	7	24.1	3.45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1	3.4	7	24.1	2	6.9	8	27.6	11	37.9	3.72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	-	-	4	14.3	8	28.6	5	17.9	11	39.3	3.82
어메니티 관련 마을 규약 및 규칙 제정	3	10.3	2	6.9	9	31.0	7	24.1	8	27.6	3.52
어메니티 지원 활용 관련 조례 및 법 제정	4	13.8	2	6.9	10	34.5	5	17.2	8	27.6	3.38

어메니티 발굴과 경쟁력 평가 실시와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이 3.86,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은 3.82, 어메니티 전문가 활용은 3.79,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는 3.72, 어메니티 관련 마을 규약 및 규칙 제정이 3.52,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은 3.50, 주민-전문가 간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회는 3.45, 어메니티 지원 활용 관련 조례 및 법 제정은 3.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어메니티 사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17) 어메니티 사업의 문제점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 1순위는 어메니티 활용과 관련한 지역민의 인식부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도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 미흡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1, 2순위)

구 분	1 순위		2 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자원의 부재	3	10.0	2	6.9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 미흡	7	23.3	9	31.0
어메니티 활용과 관련한 지역민의 인식부족	8	26.7	6	20.7
어메니티 활용의 방향과 전략 불분명	1	3.3	3	10.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체계 결여	1	3.3	3	10.3
어메니티 활용에 대한 법제지원 부족	2	6.7	2	6.9
자치단체의 재원지원 부족	5	16.7	3	10.3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3	10.0	1	3.4
합 계	30	100.0	29	100.0

18) 정책적 지원

마을 내 자원의 어메니티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생각

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22> 마을 내 자원의 어메니티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생각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18	60.0
필요한 편이다	12	40.0
합 계	30	100.0

19)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시 가장 필요한 유형은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14명(46.7%), 어메니티의 상업적 가치향상(관련 상품 개발지원) 10명(33.3%),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행동지원(협약) 5명(16.7%),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1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시 가장 필요한 유형

구 분	빈도(명)	비율(%)
어메니티의 상업적 가치향상(관련 상품 개발지원)	10	33.3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행동지원(협약)	5	16.7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1	3.3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14	46.7
합 계	30	100.0

2. 분석결과 요약 및 해석

가. 어메니티 개념 도입 현황

현재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0개의 마을 가운데 어메니티 개념(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마을이 22개(73.3%) 마을로 많았으며, 그 활용수준에 대해서도 40.9%가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어메니티 개념을 처음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대부분 주민의 환경개선 요구(77.3%)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메니티를 활용하거나 도입하는 목적은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45.5%)과 지역경제 활성화(4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한 활동은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31.8%)과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27.3%)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30개의 마을은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의해서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천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은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과는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작업을 전개하거나, 마을발전계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나. 어메니티 개념 미도입 이유

어메니티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50.0%)과 어메니티를 증진·활용하기 위한 시간과 재원의 부족(25.0%)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추후 어메니티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75.0%)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어메니티 도입시기는 2008년과 2009년 각각 2명(50.0%)으로 나타나 빠른 시기에 도

입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도입 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우선 '어메니티를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37.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어메니티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마을들도 앞으로 2년 안에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의 목표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어메니티 자원 활용 인식

어메니티 자원의 존재 정도에 대해 '어메니티자원이 많다'(63.4%)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력이 있는 어메니티 분야는 자연환경(30.0%)과 생태환경(30.0%)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단계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한다(30.0%)는 의견과 초기 활용단계(26.7%)라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어메니티 개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 중점사항에 대해서 어메니티의 관광상품화(30.0%)가 1순위, 지역이미지 제고(23.3%) 2순위,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산물 판매(31.0%) 3순위로 나타났고, 현재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관광산업 유치(40.0%)와 농수축산품의 브랜드화(20.0%)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농어촌관광 상품화와 이미지 제고, 브랜드화를 통한 특산물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메니티 전략의 도입이유가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45.5%)과 지역경제 활성화(45.5%)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활용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과 연계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측면도 있다.

어메니티 도입 및 적용에 대한 항목별 기대효과는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

히 지역의 심미성 증대(4.03)와 지역 이미지 향상(3.93), 지역의 쾌적성 증대(3.83)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어메니티 사업수행이 필요한 항목 중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56.7%)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어메니티 자원 활용 관련 조례 및 법 제정(73.3%)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메니티 발굴과 경쟁력 평가 실시(3.86%)와 어메니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3.86%),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3.82%)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어메니티 도입 및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1순위는 어메니티 활용과 관련한 지역민의 인식 부족(26.7%), 2순위는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자원 개발 미흡(31.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인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어메니티 발굴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메니티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46.7%)과 어메니티의 상업적 가치향상(33.3%)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V.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1.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 활용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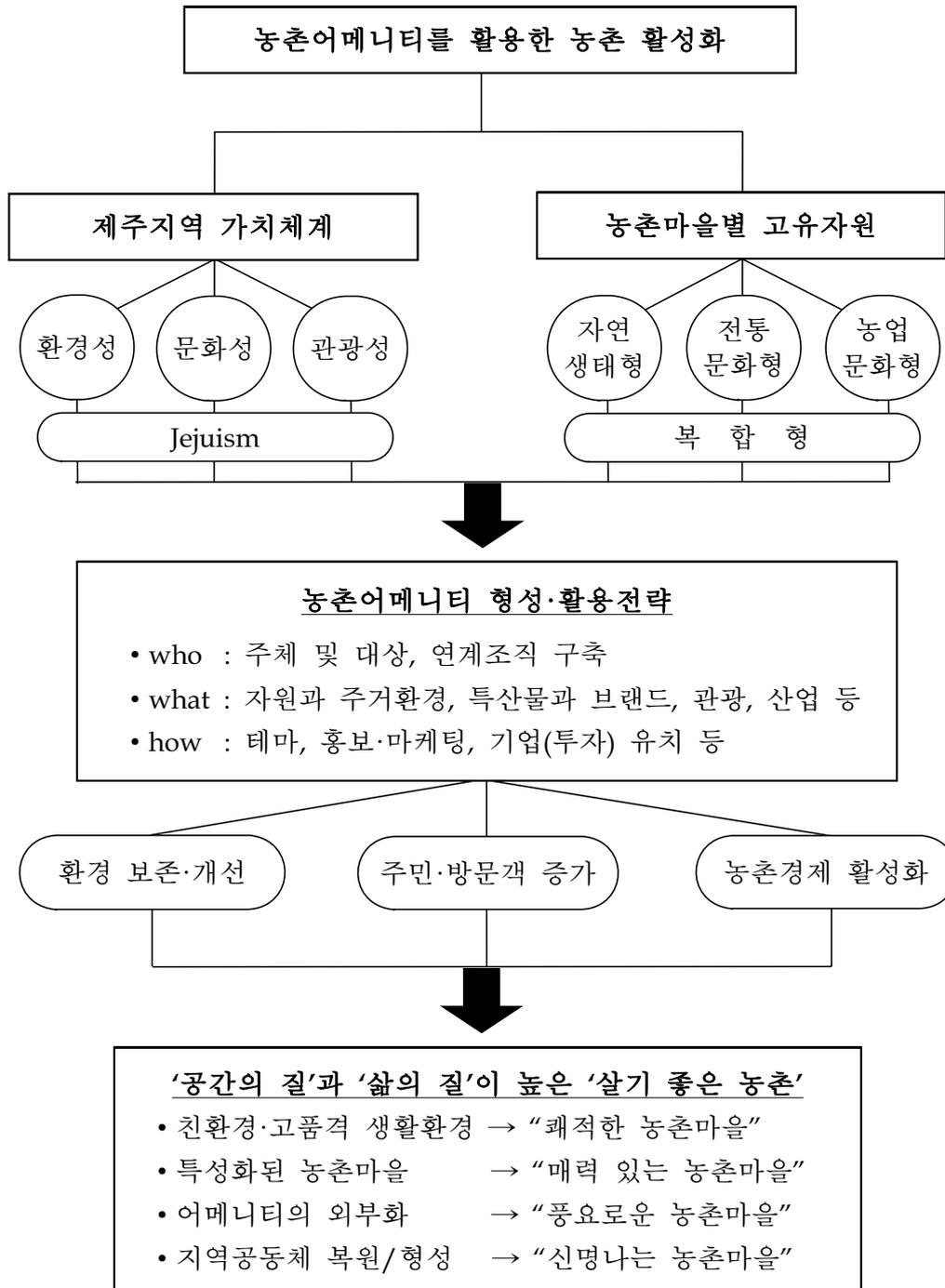
가. 기본방향

어메니티를 활용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원, 특히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내부적으로 쾌적성을 회복함은 물론, 외부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총체적 과정이라는 의미는, 특정 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전략의 구사도 가능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면적 특성을 아우르는 어메니티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농촌어메니티 전략은 상의하달식의 단순한 농촌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내생적으로 활용하는 농촌개발전략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갈 때 비로소 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결국, 농촌어메니티 발전전략은, 주체(주민)와 자원(어메니티) 그리고 양자의 외부화(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이뤄가는 일종의 프로세스라 하겠다.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교류이다. 교류란 상대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외부의 욕구와 수요를 감안해야 하며, 그에 부합하는 자원의 창출과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외부에서 눈을 주지 않으면 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그 자산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은 부득이하다. 즉, 어메니티를 이용한 활성화사업이란 현재 특정 지역이 지니고 있는 여건을 '특별한 것'(something special)으로 만들어 외부화 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군이 받을 보지 못하고 농작물만 쳐다본다면 이듬해 농사는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듯이, 지역의 '여건'과 '고유자원'을 묶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는 여건은 어떠한가, 고유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 전략기획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전자는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환경적·경제적·비전(秘傳)적 측면의 제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후자는 마을별로 지니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 농

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향을 도해해 보면 [그림 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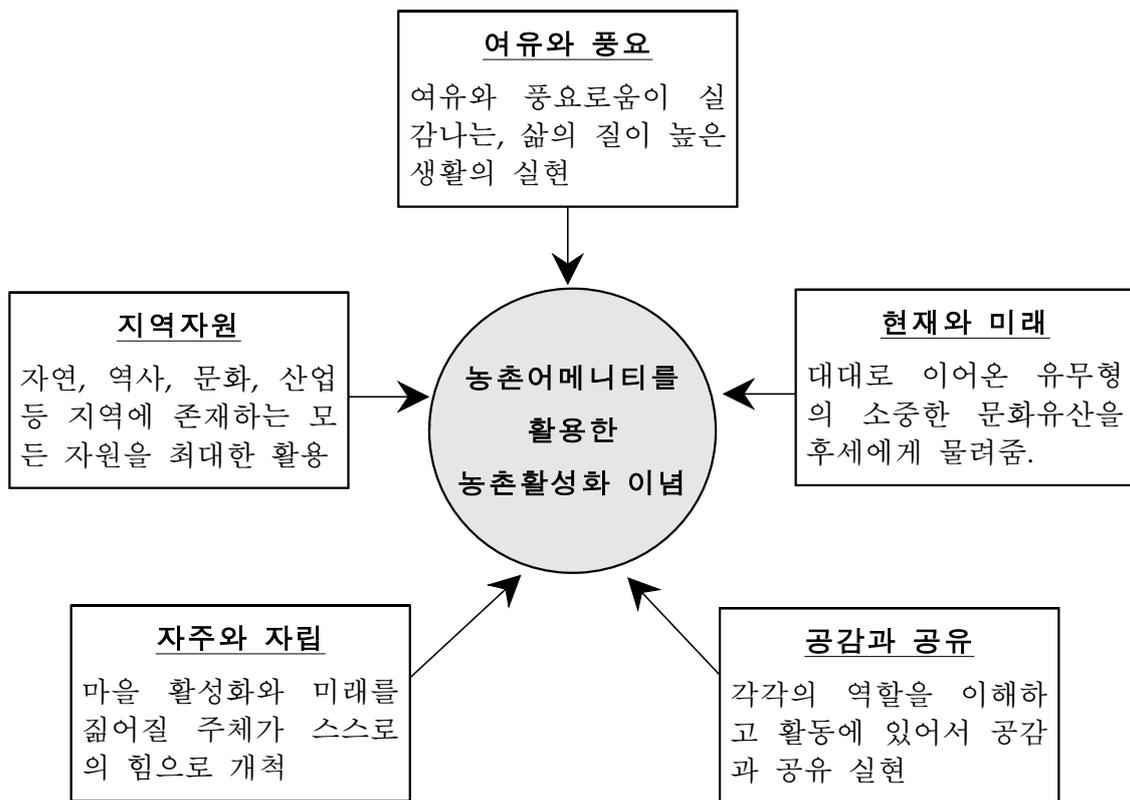


[그림 V-1] 어메니티를 활용한 제주지역 농촌 활성화의 개념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하는 것은 매력을 키우는 일이다. 매력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오래도록 자주 머물거나 찾고 싶은 욕구를 안겨준다. 결국 경쟁력 구 매력을 높이는 일이고, 따라서 어메니티 활용은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

1) 비전과 목표의 설정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농촌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비전과 목표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때 정부 및 지자체의 여타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농촌정책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자료 :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2004, p.108.

[그림 V-2]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이념

비전과 목표의 수립은 어메니티 활용의 이념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미래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비전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여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비전의 특화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농촌마을의 여건과 특성뿐만 아니라, 광역 차원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청정한 자연환경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식물의 보고라는 점 등 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제주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와 제주경제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과 1차산업 등 주요 경제활동의 특성도 감안되어야 한다. 이처럼 광역 차원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자칫 이질적이고 생경(生梗)한 테마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여타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또한 중요한데,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면 소재지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조성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육성종합계획,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이 있다.

2) 성공가능성과 개념이해

마을만들기 또는 농촌어메니티 활용에 앞서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것은 '회의적 시각'이나 '개념 이해의 부족' 등을 불식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런 화법의 하나로 '눈사람 만들기' 전략 또는 방식을 소개해 보고 싶다.

농촌주민들에게는 그들 눈높이 사례가 필요하다. 즉, 눈사람은 처음 작은 돌멩이 하나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잘 붙지 않지만 한번 붙으면 가속력이 붙는다. 이리 저리 눈을 굴리다 보면 어느새 큰 눈사람이 만들어진다. 농촌주민들은 누구나 눈사람 만드는 법을 알 것이며, 마을 만들기도 그런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성과가 나타나면 목표했던 눈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3) 테마 선정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마을 활성화 추진 시 농촌마을에 존재하는 어메니티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평가한 후 마을의 핵심테마를 선정해야 한다. 핵심테마의 선정은 농촌어메니티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테마를 중심으로 해당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는 각종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게 된다.

[그림 V-1]에서 보듯이,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테마를 상정해보면, 자연생태형, 전통문화형, 농촌문화형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계한 복합형의 테마가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마을여건에 따라 특정 테마를 핵으로 여타 테마를 가미하는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테마 선정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테마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닌 좋은 테마의 선점, △작은 것부터 차별화, △유행에 편승하기 않기, △문화에만 너무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품화 가능성 등 경제성과 상징물화 등 특화이미지 창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농촌어메니티 테마선정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을임원(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들에게 마을의 자랑거리 5~10개(마을명소, 인물, 전설, 미풍양속 등) 등을 각자 제시하라고 하다면 금방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100~200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테마별로 5~10개씩 추려서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으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결국 농촌어메니티는 그것을 활용하려는 집단의 정체성 및 긍지와 맞물릴 때 공감대와 일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환경친화형 어메니티 전략 추진

제주지역의 경우 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어메니티 전략의 근간에 쾌적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특히 대부분의 농촌어메니티들은 재생산될 수 없으며, 아무도 미래 수요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어메니티를 보존·활용하는 일은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한다. 즉, 많은 농촌 어메니티들이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파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 등 표출되지 않은 수혜자들의 이익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메니티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할 때에는 환경친화형 마을가꾸기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형 마을가꾸기 기법의 유형 및 세부항목을 보면, 우선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계획 및 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사회·경제적 측면, 생태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기술과 공법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 정비를 실현하는 측면은 물리적 측면과 생태적 측면의 계획요소라 할 수 있다.

물리적 측면의 환경친화적 정비는 건축물, 쓰레기, 상·하수도, 에너지, 도로·교통 등 다섯 가지 하위계획요소가 있다. 그리고 생태적 측면의 환경친화적 정비는 야생 동식물, 녹지 및 수경관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생태적 측면의 요소는 농촌지역을 유지·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적 측면과 생활환경적 측면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인 주택, 도로, 배수로 등은 해당 농촌마을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마을의 어메니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연조건은 물론, 생태자원과 경관자원의 특성을 살려내야만 한다. 이처럼 양자가 긴밀히 결합되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때만이 농촌어메니티 전략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5) '문화 만들기'의 병행 추진

농촌어메니티 전략은 친환경·고품격 생활환경의 창출과 함께 매력 있는 특화 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이러한 전략은 마을공동체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공동체의 복원 또는 형성이라는 토대가 없이는 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동질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해당 농촌 마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형성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문화 만들기'는 해당 마을의 특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고유한 전통문화의 복원과 활용은 물론, 전통농법의 복원과 함께 친환경농업 이행과 관련한 농경문화의 적극적인 활용, 마을의 환경적 특성을 살린 새로운 문화의 창출 등이 제주지역 농촌의 문화 만들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농촌을 농촌답게'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공동체의 복원·형성은 물론, 어메니티 전략과 연계되어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 내용으로는, 초등학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주민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마을의 전통의례 등의 축제화,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활용한 마을잔치, 농경문화와 관련한 축제 등 일과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고 공동체 구성원의 집단 신명과 활력이 넘치는, 소비자 공동체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축제와 마을 전래의 특성을 복원한 문화 만들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근래에 만들어지고 있는 축제들이 그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여타 축제와의 차별화에 실패하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문화축제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축제의 규모를 주민들 스스로 치러낼 수 있는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내실을 다져나간다는 장기적 관점이 요구된다. 즉,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여 신명나게 즐기는 특색 있는 마을잔치

가 보는 이들의 신명도 이끌어낼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통·소방 등 안전관리에 전 주민이 참여토록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보완과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놀이·교육시설의 공동운영, '공동 우영팻' 조성을 통한 먹거리 나눔문화 창출, 공동우물·폭낭알 등의 복원을 통한 만남의 문화 복원, 전통의례의 복원, 마을 내 소규모 전통문화박물관 개설 등을 통한 마을 전통문화 보전 등 일련의 문화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복원 또는 형성해나가야 한다.

6) 종합계획의 수립

발굴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테마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종합계획의 수립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 발굴과 활용, 타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의 확보 등을 위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수립 없이는 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농촌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또한, 종합계획의 수립은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 획득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테마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시스템은 농촌의 개발 방식과 계획영역의 상호관련성, 공간적·물적 계획과 운영프로그램과 관련된 비공간적·비물적 계획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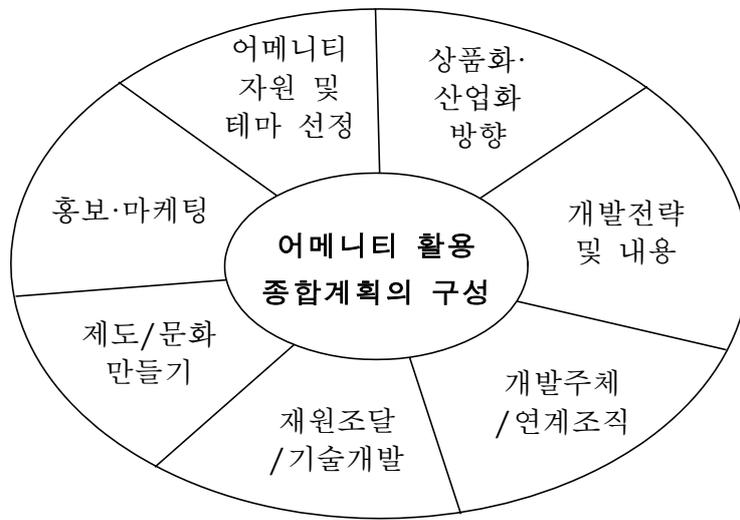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개발방식으로는 보전, 보완·보강, 정비와 신설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전은 기존의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측면이고, 보완·보강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존재

했던 우수한 어메니티 자원을 다시 조성하거나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설은 어메니티 자원의 홍보나 연구 등을 위한 도입이 요구되는 시설이나 주민의 생활 및 생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비는 기존시설의 주변환경이나 생활 및 생산 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리노베이션을 의미한다.

계획영역은 물리적 공간의 계획 및 설계와 관련하여 전시 및 교육, 연구시설의 설치, 전통적 계획요소의 복원과 정비, 주민생활공간의 개선 및 정비, 마을기반 및 지원시설 등의 정비이다. 그리고 개발유형과 계획유형은 공간적·물적 계획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비공간적·물적 측면은 제도적 지원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프로그램은 법적 규제, 관리인 파견과 관리비 보조 등의 직접적 지원과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보전과 정비에 관련된 간접적 지원을 의미한다. 운영프로그램은 어메니티의 상품화나 테마관광프로그램 등 관광 및 이벤트 프로그램과 마을정비 및 개발, 어메니티 자원 등의 보존에 주민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측면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에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게 될 각 부문에 대한 어메니티 활용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선정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제품·관광 등 상품화방안, 개발전략 및 내용, 개발주체, 제도와 문화 만들기 방안, 자원,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마케팅 및 홍보방안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그림 V-3] 참조) 이를 위해서는 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아울러 상품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나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를 통한 필요한 지원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림 V-3] 농촌어메니티 활용 종합계획의 구성

나. 부문별 접근전략

1)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및 DB화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조사는 어메니티 전략 추진의 기초가 된다. 자원의 유형과 그에 따른 종류의 양적·질적 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어메니티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어메니티 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한 역할은 지역의 어메니티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어메니티 조사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되었거나 잠재적인 어메니티, 활용하고 있는 어메니티, 잠재력은 있으나 이용하고 있지 않은 등 기능이나 활용 측면에서 어메니티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지역의 양적, 수적, 질적인 실태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어메니티 자원 조사는 광역 차원과 개별 농촌마을 차원에서 각각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어메니티 자원을 일제히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농촌지역에 산재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발굴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및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

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메니티 자원과 테마의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면서, 개별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전략 추진에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개별 농촌마을 차원에서도 어메니티 전략 추진을 위해 자원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인근 지역의 자원조사까지 병행함으로써 해당 마을만이 지니고 있는 고유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DB화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고문헌사료, 현장조사, 주민 증언, 관찰, 전문가 의견, 첨단장비 측정, 방문객 인지도 등의 총체적인 조사방법을 동원하여 자원별 인벤토리(inventory)를 만든 후 기록 유지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된 자원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보전관리하거나 가치창출을 도모할 자원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경제적 가치는 물론, 인문적,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평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어메니티의 경쟁력과 잠재성 등에 관련된 전문가와 열정이 있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체의 형성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연구·개발하고 시장가치를 높이는 주역으로서 마을 내 조직활동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조직의 경제조직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을조직 활동 강화와 경제조직화는 해당 마을의 여건과 특성, 즉, 사회경제적 여건, 어메니티 자원 여건, 유능한 리더의 유무, 마을주민의 기질, 마을활성화 전개 수준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토리고에 교수에 따르면, 주민 참여의 유형은 주민이 주체성과 적극성을 지닌 정도에 따라 참여의 층위를 제도적 참여, 목적적 참여, 가치적 참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¹⁴⁾.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치적 참여이다.

제도적 참여는 행정이 미리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참여로, 참여자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 행사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참여에 임한다. 어떤

14) 박혜련, 봉암리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미 마련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거나 부분적 보완을 위해 취하는 방식으로, 간담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형식이 주이다. 목적적 참여는 뚜렷한 요구와 목표를 지니고 참여하는 것으로, 당장의 이익 또는 손해 발생을 계기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원자력발전소, 쓰레기매립장 등 입지 반대운동이나 피해보상운동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가치적 참여는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보다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발전사업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가치적 참여의 특징은, 찬반양론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를 놓고 이질적 주체들이 모여 공동의 구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어메니티전략 구사가 가능하려면 주민들의 '자기 결정력의 제고'를 통한 실질적 참여의 동인이 형성되어야 하며, 폭넓은 정보습득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흔히 주민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편향된 정보나 개인의 이해에 매몰되어 폭넓은 시야를 지니지 못할 경우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활용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가치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의 학습의 과정을 통한 폭넓은 시야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마을 내에서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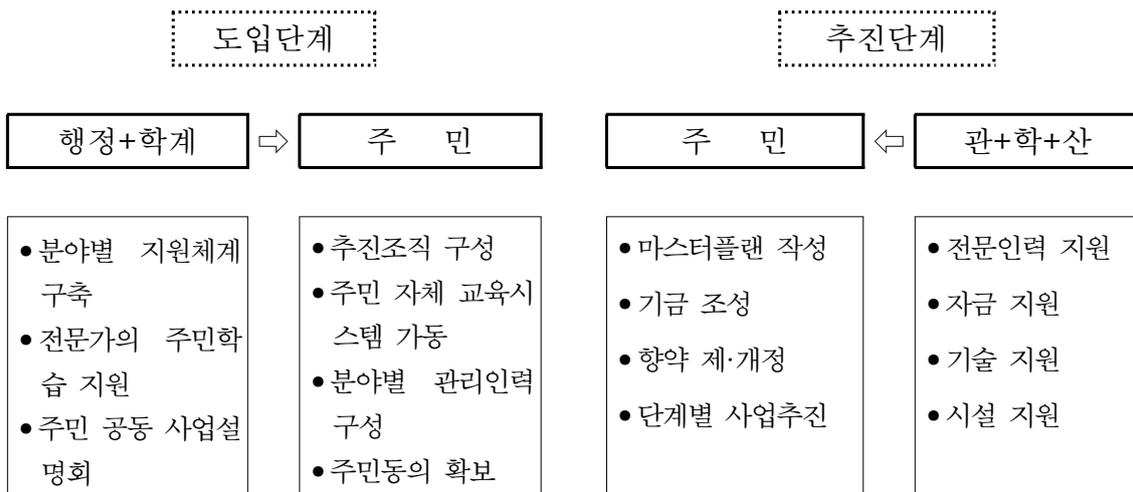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전략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을주민이다. 하지만 어메니티 전략과 관련한 일련의 단계들을 감안하면 마을주민 스스로 전 과정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체계가 필수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과 각종 부문계획, 주민 학습, 이에 소요되는 자금조달계획 등은 행정과 학계, 관련 산업계 등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 운용도를 높여나가되 초기에는 외

부지원체계와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탄력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부득이하다. 또한, 농촌마을 차원에서는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되 단기적으로는 출향인사와 인근마을 주민 가운데 분야별 전문인력을 찾아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업단계별로 추진체계를 구상해보면, 도입단계에서는 행정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마을주민 등 3자간의 어메니티 전략 도입을 위한 의견교환과 주민대상 설명회 등이 요구된다. 사업의 필요성과 장기전망, 주민의 역할 등 사업의 제반속성과 관련한 사항들이 일일이 열거되어야 하며,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마을 주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주민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기사업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의 추진 방향에 대한 계획 작성 등 전체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작동되어야 한다.

도입단계 이후의 사업은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각 추진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또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된 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메니티 전략의 도입 및 추진단계별 추진체계를 도해해보면 [그림 V-4]와 같다.



[그림 V-4] 농촌어메니티 전략 추진주체 형성

가) 지역 리더그룹의 육성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안의 성패는 사업을 선도할 리더그룹의 형성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촌어메니티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어메니티를 보존함으로써 그 혜택을 얻고, 지속적으로 어메니티를 보존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은 어메니티의 주연이면서 환경과 인력을 제공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지역개발의 능력을 교육훈련, 리더그룹의 육성, 문화·제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소프트한 측면에 달려 있다고 보고, 특히 인적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¹⁵⁾. 문당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리더그룹의 역할은 사업의 도입과 추진, 주민사회로의 확산 등의 촉매제일 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마케팅 등에 이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것이다.

또한, 자원화 기술, 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문가 그룹과 이러한 기술과 체계를 현장에서 적용하여 사업화를 선도할 리더그룹의 육성도 농촌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소재 대학 등의 전문가와 시설을 활용하고, 관련기관과 연대하며, 국내외 선진 개발지역 견학 및 연수, 전문가 초빙 등의 방법으로 지역리더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농촌어메니티를 위한 마을 조직체의 구축

현재 마을 이장과 임원의 임기는 1~2년에 불과하다. 임기종료와 함께 새로운 이장·임원이 지속적 계승이 불투명 또는 자칫 중단되거나 열정의 차이가 생기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남원읍 신흥리 동백마을 보존·육성회처럼 마을 산하 또는 방계조직으로 '마을 만들기 육성회'를 조직화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 또는 일관된 목표·목적하의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다) 자치규약 등 제도 만들기

농촌어메니티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 만들기'는 추진주체인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15) 조상필, 전계서, p.124.

데 기여할 수 있다. 제도 만들기의 대상으로는 기금 조성, 문화 만들기, 생태프로그램 운용 등 어메니티 전략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보완하여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함으로써 전략 운영의 기본틀을 짜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마을장학회, 마을금고 운영, 마을 내 교통·방법 등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까지 담아내는 자체 자치규약들을 필요로 한다.

자치규약이 기본적으로 담아내야 할 내용으로는, 의결기구 및 방법, 주민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친환경 농업 및 생태적 건축 등 이행사항,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회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정 마련 근거를 적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메니티 전략 추진과 관련한 수익사업 운영 방향과 그에 따른 각종 수익금, 즉 농·특산물 공동판매, 농촌체험 참가비, 민박료 등의 공동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용방안, 문화행사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주민교육의 효율적 이행방안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치단체의 역할분담

가) 자치단체 사업추진 역량강화

농촌어메니티 전략 추진에 있어 특정 농촌마을의 역량은 사실상 매우 열악한 것이 농촌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책추진과 지원은 어메니티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치단체의 활용전략 추진에 대해 부분적으로 중앙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추진은 어메니티의 장소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어메니티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 사업역량이 부족한 형편임을 감안할 때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단체장 및 공무원의 인식과 노하우를 제고하기 위한 어메니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역 밀착적인 사업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단위 전문가로 구성된 ‘어메니티 지역협력단’(가칭)을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 농촌어메니티 활용전략 추진기구 설치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어메니티 업무 관련부서가 있다면 어메니티 활용전략 관련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사업마다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면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행정조직의 합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차원에서 제도나 조직이 정비되는 시점에서는 시·도 차원의 광역 어메니티 추진기구를 설립·운영하여 어메니티 전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행정시 차원에서는 문화, 교육, 환경 등 생활환경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부서가 어메니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예로, 현재 ‘마을 만들기’는 11개 분야에 걸쳐 각부처별 또는 특별자치도·행정시 단위로 기획·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만들기’ 개념이 모호하거나 단순사업에 그침으로써 통합적·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비효율성·복잡성·불균형적·비합리성을 극복하려면 특별자치도정내에 마을만들기 부서간 정기적 협의과정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행정협의체’가 필요하다. 비록 부서는 다르지만 ‘마을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각 부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비교 분석·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 재원 지원 및 법제 정비

전통적인 양적 농촌개발사업과 달리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하는 질적 농촌개발사업은 어메니티 사업의 속성장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일 내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메니티 전략을 추진하는 농촌마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은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물론, 주민 주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다수 농촌마을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은 사업의 원만한 도입과 성공을 앞당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메니티사업 공모제 등을 통해 소수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성공모델을 조기에 창출함으로써 동종사업의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활용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법제 정비 노력도 필요하다. 행정조직 개편, 재정지원 체계와 함께 기타 지원내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4) 농촌어메니티 전략의 모니터링과 평가

마을별로 추진되는 농촌어메니티 전략이 신뢰를 얻고 효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어메니티 전략을 추진하는 마을단위는 물론, 광역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 또는 전담기구의 역할이 요구된다.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추적하는 한편, 자금활용의 투명성과 설득력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수단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어메니티 관련 전략들을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효과로는 교역, 고용, 환경정책 등의 분야와 같은 다른 영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전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농촌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활용방안

가.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1) 어메니티 상품 개발 다양화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 선정

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어메니티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다. 그것이 단수이든 복수이든 지역의 통일성 있는 어메니티 정체성과 이미지를 지님과 동시에 시장성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장성 있는 상품의 개발은 지역의 어메니티 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해당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상품과 부대상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1차, 2차, 3차 부문에 걸친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특산물의 판매와 같이 원형거래를 통한 시장가치화에 이어서 민박 운영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처럼 파생적인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개발도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어메니티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연계상품이나 파생상품의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계상품 개발조직을 광역 차원에서 설립·운영하여 개별 농촌마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1> 어메니티 활용 상품개발의 다양화 방안

구 분	상품화 방식		예 시
직접거래	원형거래	어메니티자원의 시장 직접거래	공예품, 자연물 등
	요소투입	어메니티자원 생산요소 일부투입	황토주택, 해수사우나 등
	관 광	어메니티 지역방문 구매, 체험	공원, 사찰, 입장료 등
응용 및 활용	속성가공	어메니티 속성 가공, 지식추가 상품 생산	드라마 촬영지 등
	이미지 첨가	유통과정에서 상품 속성과 연관된 이미지 차용 상품화	청정이미지 농산물 등
	파생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지만 자원의 파생가치 상품화	전원주택 임대사업 등

자료 : 김현호 외,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2007, p.123.

2)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관광상품화

가)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화의 기본방향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상품화의 대상으로는 유·무형의 환경적·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인적·물적 자원 등 그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화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같은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과 환경적·문화적 지속가능성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화는 대규모 외부자본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소득의 외부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농촌주민에 의해 주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운영체제로 이루어질 경우 운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가거나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역사·문화적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고유한 문화와 자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보존함은 물론, 농업문화를 심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둘째,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관광은 지역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농촌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농촌의 풍경, 사회·문화적 생활상 등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해야 한다. 자연휴양림이나 등산과 같은 관광활동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고유성은 전체 프로그램의 테마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고유성이 없는 프로그램은 생명력을 지니기 어려우며, 내방객의 호응도 낮기 때문이다. 친환경농법과 관련된 체험프

로그램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체험가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농촌관광은 기존의 관광개발에 대한 대안적 철학의 하나인 연성관광(soft tourism)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소규모 그룹, 가정기반기업, 소량, 다양성, 현실적 이익, 실제적인 경험을 주는 고객중심의 관광형태의 하나가 농촌관광인 것이다. 이에 접근하기 위하여 주민은 시간을 들여 환경을 배려하면서 인간적인 규모로 천천히 개발하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명소 관광이나 선물쇼핑보다 지역에서의 새로운 체험이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때 체험의 가치는 제품과 서비스에 매겨진 가격이 합당하다는 인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넷째,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흥미 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은 그저 한가롭고, 놀거리·볼거리가 부족한 곳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공감과 몰입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상품화에 있어 감각자극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감각이 효과적으로 가미되면 될수록 체험은 더욱 더 인상적이고 특별해질 수 있다. 방문객의 오감을 자극하는 어메니티 프로그램 개발은 특별한 체험을 통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재방문 유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전략은 지역농산물 판매와 연계되어야 한다. 단순히 민박이나 체험비 징수만으로는 농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판매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 등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어메니티 활용전략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농가소득과 지역 이미지 구축이라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 반면에 도시민들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토록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도농교류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화의 방향을 선정하여야 한다. 모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미지와 정체성에 혼돈을 줌으로써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심상품과 연계상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촌관광의 주요 상품유형으로는 농촌휴양형, 농촌체험형과 농산물판매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상호연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어메니티 자원을 핵심자원으로 삼느냐에 따라 연계방법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핵심자원이 각각의 유형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치가 충분한 자원을 선정하고 핵심상품 등의 방향을 선정해야 한다.

일곱 번째, 마을의 '스토리텔링' 거리를 수집·활용해야 한다.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전설이나 민담, 지명이나 특정지역 등에 얽힌 이야기 거리를 찾아 활용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어메니티자원이나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친화력과 구매력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상품에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모임(노인회 등)에서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자랑하고 싶은 풍습, △마을을 빛낸 인물 등을 각각 5~10가지 씩 써내라고 한다면 금방 분야별로 20~50개가 추려질 것이다. 이를 다시 분야별로 10개씩을 선정한다면 '스토리텔링'거리는 금방 확보될 것이다.

나)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화의 목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목표는 첫째, 도시민들에게 틀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과 다양한 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도시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촌지역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농촌생활에의 만족감을 증대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지역농산물, 특산품, 지역문화 등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농촌주민과 농촌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농촌과 농업에 대한 가치와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촌·농업의 문화적, 교육적, 오락적 기능과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농촌주민의 인식전환과 역

량 확충이 중요하며 새로운 목표와 이미지의 정립, 관련법규 및 지원책의 정비
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특한 시설과 체험, 서비스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마케팅
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방문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농촌관광의 성과 확산을
위해 광역 차원의 조직을 갖추고 시설 및 서비스 등급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통
해 전국화·국제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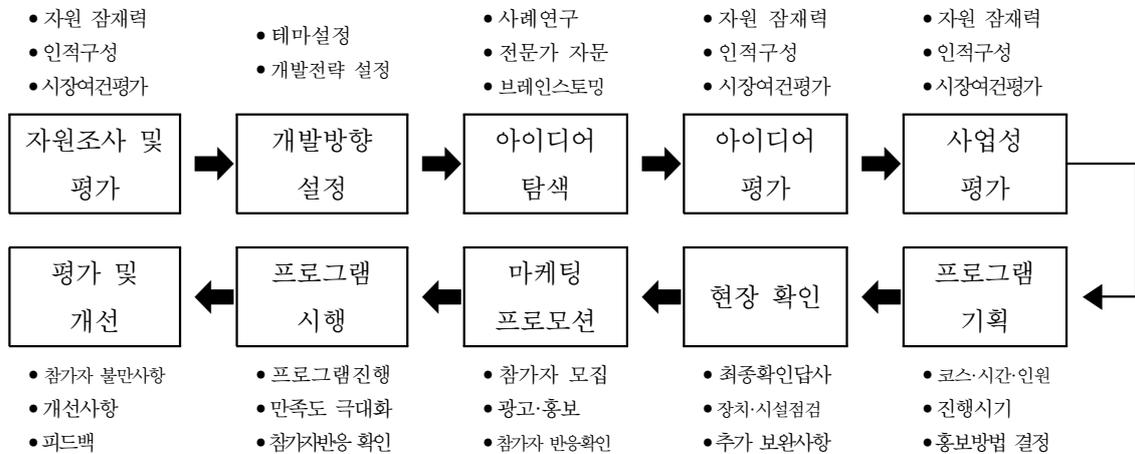
다)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 개발 프로세스

현실적으로 어메니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가운데 관광을 통한 상품화의
비중이 높다. 관광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중심으로 ‘단원다용’(單源多用, one-source multi-use)
전략과 ‘꾸시당고’(串團子, 꼬치구이) 원리를 상품화에 접목시켜야 한다. 단원다
용전략은 선정한 어메니티를 다양한 용도로 상품화하는 것이다. 체험, 이벤트,
축제, 스토리, 캐릭터 및 브랜드 상품으로 어메니티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꾸시
당고 원리는 관광객에게 연계적인 다양한 볼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체류
관광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원리이다. 꼬치구이를 하나씩 먹어서는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여러 개를 꼬치에 꿰어 먹듯이 다양한 볼거리를 연계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때 어메니티의 훼손을 방지
하는 지속가능성, 체험가치 및 재미 부여, 지역 고유 어메니티의 속성 가미 등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창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

아울러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그림 V-5]와 같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먼저 자원조사 및 평가단계, 개발방향과 설정단계, 아이디어 탐
색 및 평가단계, 사업성 평가, 프로그램 기획, 현장 확인, 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의 단계로 추진되어야 전략의 합리성을 배가할 수 있다.

16) 김현오 외, 전계서, p.124.



자료 :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활성화 방안”, 2004, p.134.

[그림 V-5]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절차

라)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의 구성요소

고전적 의미에서 상품이란 보이는 대상물, 유형의 재화에 한정했다. 하지만 현대에서의 상품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정보도 포함하여 유형과 무형으로 확대되었다.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이런 유무형의 상품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다. 농촌관광 관련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8거리’라는 용어에서도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일거리 : 일거리는 농촌관광 참가자가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즉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농사를 단시간에 경험해보는 농사 체험은 농촌관광의 주요한 상품 구성요소가 된다.

- 먹거리 : 일반관광과 달리 농촌관광의 먹거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 자체가 상품의 구성요소가 된다. 즉, 참가자가 직접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테마음식의 개발과 먹거리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 볼거리 : 볼거리는 관광의 핵심이지만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농촌관광에서의 볼거리는 농촌의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명소 만들기를 통해 특성 있는 볼거리를 개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설거리 : 최근 관광은 충분한 휴식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민박, 정자나 벤치 등을 농촌 특성에 맞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잘 자리는 철저하게 농촌다움을 지향하든지, 아니면 편리함과 쾌적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펜션형태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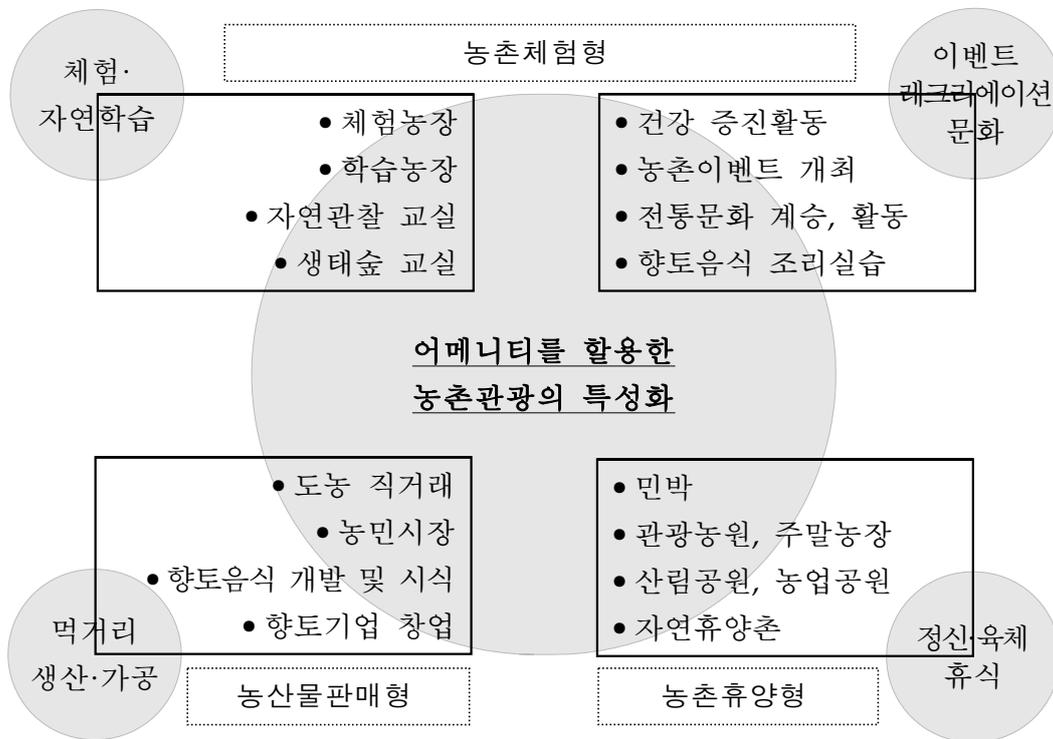
- 알거리 : 농촌관광을 농촌체험학습이라 할 정도로 농촌관광은 다분히 교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패턴의 증가도 알거리 제공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농법이나 생태,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 할거리 : 할거리는 농촌관광의 주요 소재를 일컫는다. 농사체험, 농촌생활문화체험, 공예체험, 건강체험 등 농촌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체험상품은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방안이기도 하다.

- 놀거리 : 농촌관광은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흥미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놀거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할거리보다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

- 살거리 : 살거리는 농촌관광 상품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농촌관광을 연계해 방문객에게 마을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단, '팔려고 하지 말고 사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지양함으로써 농촌관광 본연의 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간접홍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편, 농촌관광의 유형에 따라서도 상품의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농촌관광의 유형에는 농촌휴양형, 농촌체험형, 농산물판매형 등이 있다. 이들은 서로 연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호연계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고유한 어메니티 자원이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림 V-6]에서와 같이 유형별 자원을 상징해 볼 수 있다.



자료 : 제주도, 녹색농촌체험관광, 2002, p.99. 재작성.

[그림 V-6] 농촌관광 유형에 따른 관광상품 구성요소

이 같은 관광상품 요소들은 지역별로 특화브랜드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상품판매를 향상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으로는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와 '장소마케팅 전개'를 들 수 있다.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를 위한 과제로는 △마을 특유의 아름다운 숲 만들기(造林에서 美林으로 전환) 등 명소 만들기,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 만들기(동물, 식물, 어메니티 상징물 등), △지역의 슬로건, 심벌, 애칭 등 상징 만들기, △마을 내 보호수목, 유물, 생활문화 등과 관련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마을 소책자 만들기, 추억공간 만들기, 사이버 고향마을 만들기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인근지역과 연계한 공동브랜드 만들기 등이 있다.

그리고 장소마케팅 전개의 과제로는 △지역 알리기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 활용하기, △지역 고유테마를 활용한 국내외 타 지역과 교류하기, △세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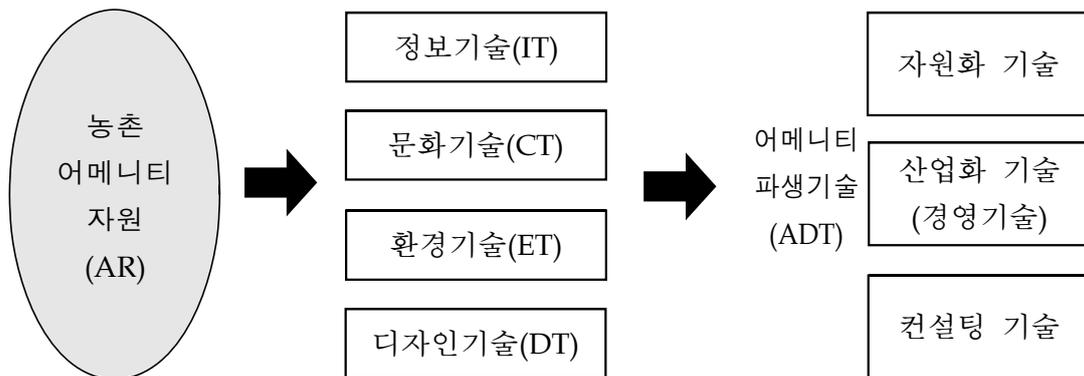
서 하나뿐인 마을축제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3)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업생명기술, 정보기술, 디자인기술, 환경기술, 문화기술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역단위의 새로운 산업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즉, 농촌어메니티의 산업화전략은 어메니티 가치를 농업은 물론, 주변산업으로 파급시키는 파생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파생전략은 기존의 산업영역에 신기술을 통해 어메니티 가치를 부가시키는 결합전략이다.¹⁷⁾

이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산업화의 원천을 찾아내는 일, 이와 결합할 외부기술을 찾는 일, 예상되는 사업성과를 전망하는 일이다. 이 가운데 어메니티 산업화의 원천은 자연, 역사, 문화, 공동체, 경관 등 어메니티 자원의 고유한 속성(인문적·사회적 속성)이나 파급 이미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메니티 원천에 결합할 외부기술은 정보기술과 문화기술, 환경기술, 디자인기술이 해당된다. 또한 지향하는 사업성과는 어메니티 자원기술과 산업화 기술, 컨설팅기술이 있다.



자료 : 조상필,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 방안”, 2004, p.128.

[그림 V-7]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전략의 개념

17) 조상필, 전계서, pp.128~130.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는 농업, 가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되는 새로운 파생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첫째, 직불농업에 따른 농업생산의 다양화와 어메니티 가치 부가형 농업생산을 통하여 창출해야 한다. 즉, 직접지불제도 확대 이후 어메니티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의 어메니티 가치 증진과 신상품화를 위한 지식형 토착농업 개발, 직불농업에 따른 경관형 농업, 토착농업 등 농업생산의 다양화, 어메니티 가치 부가형 농업생산구조의 창출과 운영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관광의 어메니티 체험관광으로의 발전과 어메니티 파생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는 농촌관광의 과정을 농촌어메니티 자원화 및 산업화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으로, 어메니티에 기초한 테마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농촌 신경제활동의 선도로서 디지털콘텐츠 및 e-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 창출이 가능하다. 즉, 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콘텐츠를 구축하고 표준모델 개발 및 e-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자상거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어메니티 가치의 유통과정에서 자원존재 범역의 내부 혹은 외부로 전이되는 파생산업의 적극적인 탐색과 개발을 통하여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즉, 어메니티가 지닌 건강성과 생태성 식품, 의복, 휴식, 목욕과 결합시킨 건강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관미, 생태성, 토착성을 부가한 어메니티 주택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체험학습 등 어메니티 교육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쾌적성과 아름다움, 토착성이 반영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 제공, 어메니티 체험축제와 문화이벤트 개최, 음향 및 영상물 제작 등 문화상품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 창출은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관광, 보양,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6차 산업'의 창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에 더하여 체험·학습·교류의 특성을 부가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순환

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는 '농업·농촌 6차산업화'의 성격을 지닌다.

4) 홍보·마케팅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전략의 성패는 홍보·마케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자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수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홍보·마케팅 툴을 도입하여야 하지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창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비용 마케팅 전략, 공동마케팅 전략, 타깃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거래 등 수요지향적 감성마케팅이 요구되며, 도농교류, 농촌어메니티 네트워크 구축 등의 마케팅 방안도 활용 가능하다.

가) 저비용 마케팅 전략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효과는 높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대신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효과가 높은 만큼 향토소식이나 문화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내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개인적으로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전문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작한 후 DM발송하거나 관광안내소나 각급 행정기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여행알선업체나 각급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행알선업체와의 연계는 단체관광객의 방문 등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이 있다. 단, 모객은 쉽지만 농촌마을의 소득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마을 자체적인 모객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한 모객으로 마을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학생단체 유치도 최근의 농촌체험관광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된 모

객방법의 하나이다. 초·중·고학생에게는 수학여행 및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대학생에게는 MT 등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 기업체, 향우회, 종친회, 어머니회, 시민단체 등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모객방법이다.

저비용 마케팅전략 가운데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온라인 홍보마케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크다. 특히, 소비·유통패러다임의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구조의 미흡에 대응할 수 있으며, 세분화 마케팅의 용이성, DB마케팅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하고 고객욕구의 파악 가능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고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의 개최와 할인과 적립금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볼 만하다.

나) 농촌어메니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마케팅 전략

농촌어메니티 전략은 점차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에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민들에게 농촌어메니티를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 농촌마을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데는 현 여건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각각의 농촌의 어메니티를 네트워크화 하여 이를 다양화하고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어메니티가 농촌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촌어메니티 통합사이트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한 공동마케팅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색을 제공함으로써 윈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하며, 계절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농촌관광상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공동마케팅은 말 그대로 협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개념을 더 확장하면 공동으로 브랜드를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 특성을 지닌 특정 권역을 동시에 홍보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다) 타깃마케팅 전략

타깃마케팅이란 특정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표적고객을 선정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농촌관광상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접근성, 마을의 전략사업과 핵심테마 등에 맞는 표적고객에 한정해 마케팅을 진행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마을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라는 지역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과 특정 단체를 타깃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타깃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직거래 등 수요지향적 감성마케팅 전략

농촌어메니티가 감성적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여 ‘감성 마케팅’, ‘인연 마케팅’, ‘직거래 마케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메니티 활용 상품에 대한 파일이나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 발송, 어메니티 오너제 및 지분제 시행, 자매결연 조직, 방문 및 체험 조직화 등의 시책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직거래 마케팅에는 인터넷 거래, 현지 직거래, 정보화마을의 연계적 활용 등이 가능할 것이다.

도·농 교류의 확대도 감성마케팅에 해당된다.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상품은 ‘도농 교류 프로그램’의 가동을 통해 보다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비자 공동체와 연대, 직거래 운동을 통한 인적 물적 상호교류 및 친환경농산물 공동판매시스템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인 농촌관광의 활성화, 문화축제의 활력화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농 교류프로그램은 농업·농촌의 희망적 비전속에 도시민들의 이에 대한 관

심 제고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도·농의 교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확대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 대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시지역 주민, 서울 등 대도시 주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단체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하겠다.

마) 고향인구 늘리기 전략

마을을 찾거나 상품을 구입한 고객을 '출향인사'와 같은 개념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들이 원할 경우(명예00마을주민) 계절별 마을의 풍경이나 소식 등을 사진과 더불어 'E-mail' 등으로 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감성마케팅도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최근 각 지역 농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다수는 그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메니티 전략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그간의 농촌개발에 대한 반성과 대안으로서 도입한 각종 마을사업은, 어메니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건 사용하지 않건 간에, 지역특성과 지역의 고유한 자원에 근거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처럼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경향의 보편성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보편성 경향에 스며있는 개념적·전략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창출하고 반영해낼 때 비로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메니티 전략의 이 같은 특성은 그 전략의 일반적 프로세스는 적극 도입하여 활용하되 모든 단계마다 지역의 특수한 또는 고유한 시스템을 개발해내고 체계적으로 외부화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

제주지역의 농촌마을을 예로 보면, 먼저 자원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농경문화 등 문화적 특성과 경관적·환경적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제관광휴양지와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특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미래비전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등에 대한 요구, 환경·생태자원의 보전·육성, 여가수요의 증대와 웰빙 열풍 등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계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어메니티자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역에 산재해 있는 어메니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서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자원부문별로 어메니티자원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다. 이는 각 마을간 동일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사업전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광역적 차원에서의 어메니티 전략 추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메니티자원의 현황 파악은 그 범위가 넓고 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행정과 학계, 관련 단체, 해당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칭)제주지역 어메니티자원 활용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농촌마을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어메니티 전략과 연계하여 체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부처별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입지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별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도로 '(가칭)제주지역 어메니티자원 활용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고유한 어메니티자원 활용사업 추진과 함께 여타 유사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어메니티 전략으로 일원화해 나간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주지역에서의 어메니티 전략 도입 및 어메니티자원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마을주민과 외부 전문가를 연계하는 등 추진주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마을주민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마을별 농촌개발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어메니티 전략의 추진에 있어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어메니티 전략 추진과 관련한 학계·단체 등 전문가의 인적 자원을 사전에 폭넓게 파악하고, 마을의 활용자원 또는 개발방향에 부합하는 부문별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해 주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제주지역 어메니티자원 활용과 연계한 파생상품들의 판매·유통 및 홍보

를 위한 광역적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어메니티 전략이 해당 농촌마을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메니티 자원 연계 또는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현 역량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완벽한 유통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제주도 차원의 연계·파생상품 인증시스템의 강화, 광역적 차원의 전문 홍보채널 확보, 관련 물류체계의 보완 등 제도적·물적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특화상품에 대한 행정기관의 부문별 인증시스템 개발은 해당마을 차원의 생산·판매기준 준수 등 자체 규약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경관·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어메니티 전략 추진을 위한 제 부문별 생태·환경기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어메니티 전략이 단순히 경제활성화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아가 농촌관광 등 경제활성화의 주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문화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한 보존·육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 생태환경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개선, 농경문화·생활문화의 고유성 복원·유지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토록 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과 함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발굴과 그 효용성을 통해 그 지역의 가치체계(환경·문화·관광성)와 농촌마을별 고유자원(자연생태형·전통문화형·농업문화형)을 활용한 소득창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5가지 요소를 어떻게 잘 복합화 내지 차별화(Jejuism)하느냐가 매우 주요한 관건이며,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은 타지역보다 고유한 농업·농촌어메니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다양한 방안수립은 향후 제주지역경제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한 구상', 제이플러스에드, 2006.
- 김현호·오은주,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 네이버(www.naver.com).
- 농림부,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사례별 농촌마을 모형설계", 충북대학교 용역보고서, 2006.
- 농어촌연구원, 농촌마을 특성화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 2001.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개발연구소,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한 향토 산업 사례분석", 2006.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2005.
- 마쓰오 다다스 외, '시민의 참가하는 마치즈쿠리' 전략편·사례편, 한올아카데미, 2006.
- 박혜련, 봉암리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오성수, '그린투어리즘의 블루오션 전략', 전남대학교출판부, 2006.
- 유상건, "한국 농촌 개발의 성과와 과제 - 농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어촌과 환경', No.98,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2008. 3.
- 전영옥,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제주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 제주의 미래, 마을에서 찾는다.' 세미나 자료집, 2006.
- 제주도·제주대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1세기 농촌 발전의 대안 - 녹색농촌체험 관광", 2002.
- 조상필,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촌 활성화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4.
- 지경배, "강원도 농촌어메니티 자원실태 및 활용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 지역혁신 사례, 200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2007.

<부 록>

ID□□□

농촌 어메니티[Amenity] 자원 조사

안녕하십니까?

최근 어메니티(Amenity)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지역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의 실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발전전략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 마을의 발전과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 본 설문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최 영 근 연구원(☎ 726-7403, FAX 751-2166)

● 면접원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면접원 성명		조사일시	2008년 6월 ()일 ()시경
조사 지역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응답자 근무지			

- ③ 어메니티 자원의 탐색 및 발굴
- ④ 어메니티 개선사업을 계획
- ⑤ 어메니티 개선사업의 직접 수행 또는 간접적 지원
- ⑥ 기타()

□ 다음 항목부터는 모든 마을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선생님 마을의 어메니티자원의 존재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은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은 편이다 ⑤ 매우 적다

12. 선생님 마을은 어느 분야의 어메니티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자연환경(전망, 쾌적성 등) ② 생태환경(생태보존, 청정성 등)
- ③ 역사환경(인물, 사적지 등) ④ 문화환경(민속, 풍습, 곳 등)
- ⑤ 여가(관광)환경(관광시설, 유명 관광지, 숙박시설, 골프장 등)
- ⑥ 오락환경(놀이공원, 주제공원, 축제 등)
- ⑦ 교육환경(학교, 자연생태교육장 등) ⑧ 주거환경
- ⑨ 방법 및 치안 ⑩ 기업환경(관광, 농수축산 관련업체)
- ⑪ 기타 ()

13. 선생님 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활용단계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활용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 ②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③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고자 한다 ④ 초기 활용단계이다
- 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⑥ 어메니티 활용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 ⑦ 관련 규칙 및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⑧ 기타 ()

참 여 연 구 진

연구책임 : 강승진(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강 훈(제주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 강문규(한라일보 논설실장)

김현철(한국농어민신문 제주본부장)

설문조사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제주지역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인쇄일 / 2008. 6.

발행일 / 2008. 6.

발행인 / 허향진(제주발전연구원장)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8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574-1

Tel. 064-726-0500 Fax : 064-751-2168

홈페이지 : <http://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8-89-6010-05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